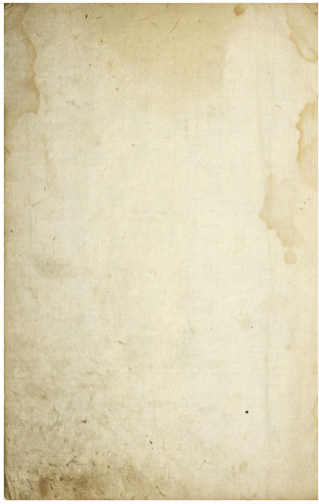


00
21
86





第
090
號

民國二十六年六月二十日
吉 6600

391

第
21
60

朝
宗
亦
宜
慶
壽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者統諸佛降靈之本致

也 ○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一

本末 리 ○ 佛 불 人 降 강 靈 령 化 화 經 경 은 諸 諸

다 覽 은 靈 령 은 率 솔 는 里 리 오 실 시 라 諸 諸 佛 불 이

은 衆 중 생 싱 은 로 부 텃 知 지 見 견 心 심 가

야 리 變 易 아 아 라 들 에 후 야 記 기 記 記 心 심 가

부 터 知 지 디 見 견 心 심 가 후 야 衆 중 생 싱 은 諸 諸

들 모 어 나 도 잡 도 다 纏 結 大 夏 出 彼 千 數

이 이 東傳震旦 三百餘載 大夏

개외화미가 大대夏하는 竺 國 結 集

집이라 ○ 터에 남 천년 이어 東

농으로 震 旦 傳 된 三 百

年 中 西 晉 惠 帝 永 康

初 翻 此 經 名 正 法 華 西 晉 初

惠 帝 永 康 年 中 西 晉 惠 帝 永 康

法 華 經 護 法 經 翻 譯

東 晉 安 帝 隆 安 年 中 後 秦 弘 始 立 慈

沙門鳩摩羅什이次翻此經이名이妙

法蓮華오○東동晉진安안帝테隆릉
安안年년中中后후秦秦진

法摩아羅라社社스미이버거이經경翻번譯

法역법蓮蓮권華화이妙妙顯顯隋氏仁壽에大興

善寺北天竺沙門闍那笈多의後所翻

者도同名妙法이○隋隋氏氏州仁壽

那寺이北北天天竺竺岳岳沙沙門門闍闍那那

三經이重沓이文

音互陳이時所宗尚은皆弘秦本이○

세경이 글과 文문字조와 撰패서르
 此나 이 제宗尚尙尙호문 ○宗宗은 尊
 宗은 시오 尚尙은 노골시라 ○
 自餘支

品別得 不無其流 具如序曆 故

疥非述 이니 ○이보터하문 지지는

갈아날 시니 제 翻번 譯역 跋기 密門 帝

音 翻번 譯역 하야 祇 祇 密門 帝

閣 佛 那 門 品 品 翻번 譯역 하야 品

重 佛 頌 得 多 翻번 譯역 하야 品

別 佛 得 佛 序 佛 佛 佛 佛 佛 佛

슬리이
니라
夫以靈嶽。降靈。非大聖。
시이

無由開化。道化所及。非昔緣。

이
無以導心。○靈령嶽악이靈령

聖성아니시면여러교교화화하살전

치읍스시며마치교교화화하살전

成機分小大之別。○金河。顧命

道殊幸滿之科。○豈非教被乘時

마르
無足數其高會。○선苑은네仙산人

신
成성하샤○선苑은네仙산人

신下하 일운功공을 남금의告고 호
 아니正정覺각 일우샤를가 즐버슬오
 律○鐵鐵의太대小소 달오몽는
 호시교金금何하애도라命명호샤道
 도半반과滿만갯科과 다르시니
 었페敎교니피샤미時시를득다아니
 호시료마르노은會화에足족히靈靈의
 實실호미엄스시니○曩曩은相상考考
 고호是知五千退席이爲進增慢之儔
 시라五石授記俱崇密化之迹이샤
 五石授記俱崇密化之迹이샤
 ○五石授記俱崇密化之迹이샤
 만의물나소몬爲위호시며五石授記
 百은記의심기샤미秘비密밀호化
 화은자최를노피신돈이애아호리
 로所以放光現瑞는開發請之教源이

고 ○그런나호로放방先광호사祥상瑞

을敎교이根근源源 出定揚德 온暢佛慧

원을여로사고 ○도덕에나사總덕기리

之宏略 이시 ○대문佛불慧혜의머리

신道도를 朽定 온通入大之文軌 고시 ○

폐시키고 탁은大平에드를文문軌귀를

朽후宅택은大平에드를文문軌귀를

通통예고시고 ○天천下하하하大대手

평흔저근글워라 文문字字하하하하

슬위자최관나니 法법으론圓원敎교

八八實실은文文문字字하하하하

라化坊 은引昔緣之不墜 고시 ○城化성화

은빛緣緣원이일이티繫繫珠는明理性之堂

在 오 ○繫계珠슈는 理리性성이 變變

은 顯示悟之多方 이 시 ○鑿착井정은

을 논 어러 法법 詞載宛然 고 시 喻陳이 惟

遠 나 하 시 ○말 合과 攄과 辨득 하 시 시 고 自

非大哀曠濟 면 拔滯溺之沈流 하 시 一

拯慈心 이 하 拯昏迷之失性 리 하 시 ○장

물 아 너 비濟 戒度 도 하 시 리 아 니 시 면

결 이 머 岬 단 동 권 무를 卍 하 시 며 훈 가

시 現 어 즐 하 야 모 리 노 일 혼 性성을 거
리 시 自漢至唐 하 六百餘載 에 總歷群

籍이 四千餘軸이다. 受持盛者는 無出

此經이니 ○ 漢한 브터 唐당애 니르리 六

한글 위리 四스스 천나 문軸獨이 經경에

受슈하 아 니노 미 盛성호 문이 經경에

스니 將非機教 一相扣는 並智勝之

遺塵이 聞而深敬 은 俱威王之餘勳이

○ 機기와 教교와 서르 맛드 로 문과 智

와기 피 恭공 敬경 하 습는 닐다 轉於經

首에 序而綜之니 노 ○ 序서하야 四리에
上庶得早淨六根야 仰慈尊之嘉會

며 오
速成四德야 趣樂土之玄猷야 노

六류根근을 일조제하야 慈不尊존人
아름다오신 會회를 위스오며 ○

不尊존은 彌미 勒릭을 순오니라 ○ 四
德덕을 셤리 일위 樂락 토토 八八 昏

道도 에 카 돈 得득 弘 普 賢 寫 法 永 贍 諸
과 匪 非 라 노 니

後云爾라 ○ 後 후 세 세 를 기 리 유 노 라
비 퍼 돔 스 오 미 다 음 업 서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卷第一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妙法蓮華經序品第一

如是은我聞은一은時에佛이住는王舍

城者闍崛山중○이 근은 날내 든는 조

왕 솔 사 城 성 者 기 闍 崛 山 中 에 住 는 佛 이 與 大 比

丘衆萬二千人 俱는 皆은 是는 時에 獲

漢이 諸를 漏한 已는 盡한 無는 復는 煩은 惱를 遠히 得

已는 利한 盡한 諸를 有는 結을 心을 得은 自은 在는 自은 在는

큰 比 丘 구 衆 중 萬 만 二 阿 千 천 人

漢 煩 汗 遍 諸 界 漏 斯 魯 阿 羅 漢 煩 汗 遍 諸 界 漏 斯 魯 阿 羅 漢

득 아 호 매 미 스 며 자 在 지 룬 득 득 스 나 다 아 호 매 미 스 며 자 在 지 룬 득 득 스 나

○ 其 名 曰 阿 若 憍 陳 如 摩 訶 迦 尼 러 ○ 其 名 曰 阿 若 憍 陳 如 摩 訶 迦

葉 優 樓 頻 螺 迦 葉 伽 耶 迦 葉 那 과 葉 優 樓 頻 螺 迦 葉 伽 耶 迦 葉 那

提 迦 葉 舍 利 弗 大 目 犍 連 摩 訶 迦 과 提 迦 葉 舍 利 弗 大 目 犍 連 摩 訶 迦

旃 延 阿 菟 樓 駄 劫 賓 那 憍 梵 波 과 旃 延 阿 菟 樓 駄 劫 賓 那 憍 梵 波

提 離 婆 多 畢 陵 伽 婆 蹉 薄 拘 羅 과 提 離 婆 多 畢 陵 伽 婆 蹉 薄 拘 羅

와 摩 訶 拘 締 羅 難 陀 孫 陀 羅 難 陀 과 摩 訶 拘 締 羅 難 陀 孫 陀 羅 難 陀

와 富樓那彌多羅尼子 와 須菩提 와 阿

難 과 羅睺羅 와 如是衆所知識 엇 大阿

羅漢等 니 이 러 ○ 그 일 후 은 빌 오 디 아

摩 마訶 하迦 가 葉 葉 葉 葉 과 伽 가 優 우 樓 루 頻

利 리 弗 블 와 나 提 테 迦 가 葉 葉 과 舍 사

摩 마訶 하迦 가 施 전 延 연 과 阿 알 菟

교 梵 범 波 바 提 테 와 離 리 婆 바 多 다

拘 구 羅 라 와 摩 마 訶 하 拘 구 羅 라 難 난

羅 라 니 니 와 富 부 樓 루 須 슈 善 선 보 보 提 테 와 다

去聲 一 二

阿_아難_난과羅_라睺_후羅_라와이
티모_{티모}다아_아논_논大_대阿_아羅_라漢_한돈

니_니○復_복有_유學_학無_무學_학二_二千_千人_人 摩_摩訶_訶

波_波闍_闍波_波提_提比_比丘_丘尼_尼 與_與眷_眷屬_屬六_六千_千人_人 摩_摩訶_訶

俱_俱羅_羅睺_후羅_라의 母_모耶_야輸_수陀_타羅_라比_비丘_丘尼_니

亦_亦與_與眷_眷屬_屬俱_俱 ○ 二_二千_千人_人 신_신과

丘_丘쿠_쿠尼_니 波_波闍_闍波_波提_提比_비丘_丘尼_니 眷_眷屬_屬六_六千_千人_人 신_신과

어_어신_신과_과하_하디_디와_와시_시여_여羅_라睺_후羅_라의

쿠_쿠니_니 佐_조眷_眷屬_屬 ○ 善_善薩_薩摩_摩訶_訶薩_薩

八_八萬_萬人_人 皆_皆於_於阿_阿耨_耨多_多羅_羅三_三藐_藐三_三菩_菩提_提

○不退轉사皆得陀羅尼와樂說辯才

轉不退轉法輪며供養無量百千諸

佛와於諸佛所에植衆德本사常為

諸佛之所稱歎며以慈愍身사善入

佛慧사通達大智사到於彼岸사名稱

○普聞無量世界사能度無數百千衆

生나○八菩보薩살摩마訶하阿아

提提多다羅라三삼藐藐三삼菩菩薩薩

得得尼니와樂요說說辯辯才才法法

법輪은 우귀시며 그 정업은 백
 천諸佛불을供養함은 백
 諸佛불에 한德의 미를 시묘
 네諸佛불사일규라讚歎탄
 사미외이며慈로묘대근
 佛불慧에야아대드르샤
 해를通達말호샤더샤
 샤名稱칭이無무량세
 예너비들이샤無무數수
 衆生은能히濟度도호
 러나 ○其名曰文殊師利菩薩
 世音菩薩와得大勢至菩薩와常精進菩
 薩와不休息菩薩와寶掌菩薩와藥王
 菩薩와勇施菩薩와寶月菩薩와月光

菩薩

와

滿月菩薩

와

大力菩薩

와

無量

力菩薩

와

越三界菩薩

와

跋陀婆羅善

薩

와

彌勒菩薩

와

寶積菩薩

와

導師善

薩

와

如是等菩薩摩訶薩八萬人

俱

며

○

그 일 후 미

文 문

觀 관

殊 舍 師 小 利 리

世 世 音 음

菩 菩

보

와

상

精

進

진

菩

와 불

休

息

식

菩

와

寶

보

掌

용

施

시

菩

와

寶

보

와

살

와

無

무

량

力

대

菩

와

열삼계계품보살 婆바羅라품보살 보살와寶보積적품 도師스승보살와어 보薩살摩마河하薩살 萬만人신이은디와 시며○爾時	釋提桓因 <small>에</small> 與其眷屬二萬天子 <small>와</small>	俱 <small>며</small> 復有名月天子 <small>와</small> 普香天子 <small>와</small> 寶	光天子 <small>와</small> 四大天王 <small>이</small> 與其眷屬萬天	子 <small>와</small> 俱 <small>며</small> 自在天子 <small>와</small> 大自在天子 <small>와</small>	與其眷屬三萬天子 <small>와</small> 俱 <small>며</small> 娑婆世界	主梵天王尸棄大梵 <small>과</small> 光明大梵等 <small>이</small>
--	---	--	---	--	---	--

與其眷屬萬二千天子

와俱

○

釋

○

提提桓桓因인이眷眷屬屬속속二二萬萬

月월天天子子과과와와普普보보香香天天子子

태태天天王王이이眷眷屬屬속속萬萬天天子子

子子과과와와大大自自在在天天子子과과와와

梵梵天天王王사사바바世世界界대대梵梵

과과광광明明大大梵梵等등을을과과와와

사사와와○有有八八龍龍王王難難陀陀龍龍王王과과跋跋難難

陀龍王과婆伽羅龍王과和修吉龍王

과德义迦龍王 과阿那婆達多龍王 과

摩那斯龍王 과優鉢羅龍王等 이各與

若干百千眷屬 과俱여○ 여龍龍王

龍龍王 왕과跋難陀龍王 왕과德叉叉

迦伽龍王 왕과阿那婆達

龍龍王 왕과優우鉢鉢羅龍王 왕

千천眷眷屬屬속과하디와시며○有

四緊那羅王法緊那羅王 과妙法緊那

羅王 과大法緊那羅王 과持法緊那羅

王_이 各與若干百千眷屬_과 俱_하 ○_네

인 那나 羅라 王왕 妙묘 法법 緊緊 那나 羅라

왕 왕과 大대 法법 緊緊 那나 羅라 王왕

왕 왕과 持지 法법 緊緊 那나 羅라 王왕

四乾闥婆王樂乾闥婆王_과 樂音乾闥

婆王_과 美乾闥婆王_과 美音乾闥婆王

各與若干百千眷屬_과 俱_하 ○_네

달 婆바 王왕 樂악 乾乾 闥闥 婆바 王왕

왕 왕과 美미 乾乾 闥闥 婆바 王왕

미 音음 乾乾 闥闥 婆바 王왕

과호디 ○有四阿修羅王婆稚阿修

羅王과法羅騫馱阿修羅王과毗摩質

多羅阿修羅王과羅眼阿修羅王이各

與若干百千眷屬과俱호 ○네阿야修

왕婆바稚디阿아修슈羅라王왕 호와 호과

법羅라騫권馱다阿아修슈羅라王왕

왕과 毗摩마質질多다羅라阿아修슈

수羅라王왕 호와 호과 호와 호과

有四迦樓羅王大威德迦樓羅王과大

身迦樓羅王과大滿迦樓羅王과如意

迦樓羅王이 各與若干百千眷屬과俱

며 ○ 德迦가樓루羅라王와大대威위

迦신迦가樓루羅라王와大대滿만

樓루羅라王와大대滿만

며 ○ 耉提希의子阿闍世王이與若

千百千眷屬과俱各禮佛足고退

坐一面라하니 ○ 阿闍世王의아

若약干간百백千천眷屬속과하

면하습안고물러하면 ○ 爾時世尊의四

法華經

衆。圍繞와。供養恭敬尊重讚歎

。爲諸菩薩사說大乘經니。名이無

量義니。教菩薩法며。佛所護念라。○

世世尊은。四衆중。恭敬이。圍繞고。重

동讚歎한。數한。大대乘상。諸경。佛부。護보

시。無무量량。義의。佛부。結터。跏

호。念념。佛불。說설。此이。經경。已고。結結。跏

趺坐사。入입於於無量義處處。三昧삼。身신心심。

不動동。○부。結結。跏跏。坐坐。入입。於於。無무。量량。義의。處처。三삼。昧매。身신。心심。

坐坐臥臥無無量量義義의處의處처처삼삼

殊殊의의세세드드르르샤샤몸몸과과의의심심과과의의무무디디아

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

야야而而散散佛佛上上과과及及諸諸大大衆衆여여○○이이의의해해셔

만만陀陀다다羅羅라라華華화화와와曼曼만만殊殊슈슈沙沙사

華華화와와摩摩마마訶訶하하曼曼만만殊殊슈슈沙沙사

入入의의계계○○普普佛佛世世界界六六種種震震動動의

○○너너본본부부터터세세계계에에○○爾爾時時의

會會中中에에比比丘丘와와比比丘丘尼尼와와優優婆婆塞塞과과優

婆夷 와 天 과 龍 과 夜叉 와 乾闥婆 와 阿

修羅 와 迦樓羅 와 緊那羅 와 摩睺羅伽

人非人 과 及諸小王 과 轉輪聖王 과 是

諸大衆 이 得未曾有 야 歡喜合掌 야 一

心觀佛 러니 ○ 그 회 회 중 등 에 비 나 비

와와 優 우 婆 바 塞 식 과 優 우 婆 바 夷 이

와天 天 龍 룡 과 夜 야 叉 차 와 乾 건

闍 闍 婆 바 와 阿 아 修 슈 羅 라 와 迦 가

樓 루 羅 라 와 緊 긴 那 나 羅 라 와 摩 마

諸 諸 小 소 王 왕 과 轉 전 輪 룬 聖 성 王 왕

아 왕 과 이 거 모 든 대 衆 중 이 거 합 후

장호야호미스기로 ○爾時여佛

放眉間白毫相光샤照東方萬八千世

界샤靡不周遍니 ○問그베부테眉미

相상光광은피샤東동方방萬만八

팔千천世세계界界를비취샤周주遍

上至阿迦尼吒天히於此世界에盡見

彼土옛六趣衆生며又見彼土옛現在

諸佛호며及聞諸佛人所說經法호며

아래로阿아鼻비地디穢욕타에니를

에 이르러 이 세 세계에 다 보이다

다 현제 불지 諸佛불지 經法

법을 보며 ○ 并見彼諸比丘比丘尼優

婆塞德深莫의 諸修行得道者며 復見

諸菩薩摩訶薩의 種種因緣과 種種信

解와 種種相貌로 行菩薩道으며 復見

諸佛의 般涅槃者으며 復見諸佛의 般

涅槃後에 以佛舍利로 起七寶塔니

우며 모도 比丘구 비비구니 優

希有事나 當以問誰耶 誰能答者에	尊이 入于三昧나 是是不可思議 現	如나 以何因緣로 而有此瑞고 今佛世	의 作是念다 今者世尊이 現神變相	계로 칠찰寶보탑탑나 ○爾時彌勒善薩	날 撰반호오 산後후에 부뒷숨자利리	諸제佛불이 般반는 佛불이 般반	種종도 行행호는 般반호오 사나	業아 롱과 種종종종양으로 善보薩	業아 롱과 種종종종양으로 善보薩
------------------	-------------------	--------------------	-------------------	--------------------	--------------------	------------------	------------------	-------------------	-------------------

立復作此念호시是文殊師利法王之

子호已曾親近於我過去無量諸佛호

必應見此希有之相호시我今當問

호리爾時호立호立호立호尼優婆塞優

婆塞夫호及諸天龍鬼神等호咸作此念

是佛光明神通之相호今當問誰호

호爾時호欲自決疑호

又觀四眾호立호立호尼優婆塞優婆塞

及諸天龍鬼神等眾會之心호而

問文殊師利言

하샤

以何因緣

로而有

此瑞하샤神通之相

이

放大光明

하샤照于

東方萬八千土

하샤

悉見彼佛

國界莊

嚴

이인니 ○

이그卍彌勒佛을지勒스샤되오느세

세尊존이神신變변相상은나토瑞

세경신고오늘부터世세尊존이三

삼昧의예드르시니이不블可非愚

스儀의옛希희有유흔이를나토사

디반드기늘드려무르며가飲능히

디외文문殊슈師소刹이슬럼을하샤

子不는親친迹迹은供공養양하샤

供공養양하샤

主	明	瑞	근	구	神	우	구	결	勒	늘	朋	들	矣	요	리	보	실
토	명	제	샤	구	신	우	구	결	勒	늘	朋	들	矣	요	리	보	실
를	피	제	다	문	신	우	구	결	勒	늘	朋	들	矣	요	리	보	실
바	샤	제	다	문	신	우	구	결	勒	늘	朋	들	矣	요	리	보	실
취	샤	제	다	문	신	우	구	결	勒	늘	朋	들	矣	요	리	보	실
시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니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녀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부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렸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國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국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界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계	동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在강嚴엄을다 ○於是彌勒菩薩

欲重宣此義以偈問曰 ○

이 제 락미 勒 록 菩 보 薩 살 이 이 卍 들 다 시 퍼 려 하 사 偈 계 로 문 조 와 슬 오

다샤 ○文殊師利 導師 何故로眉

間白毫 大光 普照 兩曼陀羅

와 曼 沙 華 栴 檀 香 風 이 悅 可 眾 心

나 以 是 因 緣 로 地 皆 嚴 淨 而 此 世 界

六 種 震 動 時 四 部 眾 이 咸 皆 歡 喜

身 曾 伏 然 得 未 曾 有 此 ○ 殊 介

○眉미問문光광明명이東동方방多다寶보無무量량寶보藏장千천千천佛불土토를비취샤다

金금剛강色색의아근하셔니阿아鼻비獄獄

옥브터우흐로有유頂정에니르리

諸주世세界계中중有유六육道도衆중

중生생의살며주거가六육道도衆중

며구존業업緣緣연으果과報보受受

습호미도하며구주물예셔다보며

又觀諸佛三師子演說經典

妙第一其聲清淨出柔輭音

妙教諸菩薩無數億萬나梵音이深

妙令人樂聞시各於世界에講說

正法다種種因緣과以無量喻로照

明佛法샤開悟衆生타若人이造惡고

於이厭老病死든爲說涅槃샤盡諸苦고

際이若人이有福고曾供養佛와

志求勝法든爲說緣覺이若有佛고

子이修種種行야求無上慧든爲說淨고

道고○主보師스子스諸제佛불聖성典典顯顯

微미妙묘第第一一等等淨淨正正法法也也佛佛經經典典顯顯

소리론내샤諸제菩보薩살無무毀

음이감고微미妙묘고샤사리세미즈
겨들좁게고시며各司各世세미즈

文殊師利

我住於此

見聞

若斯及千億事

如是衆多今當

우	佛	위	스	복	솔	널	病	디	여	업	르	게
야	불	하	와	이	다	槃	병	하	보	슨	샤	에
조	자	야	야	이	다	반	死	다	기	벽	디	正
호	스	緣	대	서	케	니	次	가	샤	피	種	正
도	혜	연	호	아	호	리	를	샤	衆	喻	종	法
로	해	覺	호	리	사	샤	아	르	중	유	種	法
를	를	각	호	부	며	여	천	미	生	로	종	법
니	求	니	법	터	호	러	거	菩	싱	佛	因	講
리	구	르	을	를	다	受	든	고	온	불	인	강
시	커	시	求	供	가	슈	爲	를	여	法	緣	論
야	는	며	구	공	차	苦	위	만	러	법	연	론
니	위	호	커	공	르	고	호	나	알	을	괴	호
	다	다	든	양	미	사	야	老	외	비	그	야
가	가	爲	호	호	橋	江	浮	江	사	치	지	니

略說

이호다리 ○ 이호문殊승師스리보리하대

로미안근니아며제반드천億의이슬이

다리이 ○ 我見彼土 恒沙菩薩 種

種因緣 而求佛道 或有行施

金銀珊瑚真珠摩尼瑔珠瑪瑙金剛諸

珍妙奴婢車乘 寶飾璽輿 歡喜布

施 回向佛道 或有乘 三界第

一 諸佛所歎 或有善陸 騎馬寶

車 欄楯蓋蓋 軒飾 帝施 復見

머리 시고 후 보 되 홀 보 살 이 비 보 구	나 라 관 궁 공 嚴 던 臣 신 妾 첩 을 곧 브	나 하 가 無 공 嚴 도 문 잡 고 도 흔	리 라 하 해 보 되 諸 계 王 왕 이 부 터 스	이 머 리 와 는 과 모 물 즐 겨 주 어 부 터	상 道 도 求 구 하 며 또 보 디 하 야 와 손 발 과 와	妻 처 子 조 로 布 보 시 하 야 와 손 발 과 와	軒 헌 餘 식 은 로 布 보 시 하 야 와 손 발 과 와	비 솔 위 와 欄 난 楸 순 과 빛 하 나 며 개 와	배 며 사 후 善 보 禿 살 이 채 물 메 운 보 는	원 하 니 諸 계 佛 불 讚 찬 數 탄 하 시 는	삼 界 계 예 第 제 一 일 을 得 득 고 저 顏	도 애 도 려 혀 向 하 야 의 乘 승 의 三	환 흥 희 하 야 布 보 施 시 하 야 佛 불 道	솔 위 와 보 비 로 부 문 輦 년 興 여 로 歡
--	--	--	--	--	---	---	--	---	---	--	--	---	--	--

去聲 至一

마	諸	法	자	호	불	慧	호	偈	禪	머	을	거	를	간	보	사
兵	制	無	無	며	칙	혜	호	偈	선	또	기	르	스	호	디	이
衆	善	講	무	초	문	감	오	로	호	보	피	랑	하	의	善	서
衆	보	광	량	보	초	고	며	諸	이	디	닷	원	호	淳	보	經
衆	薩	호	양	디	오	브	또	제	호	호	하	사	며	심	薩	로
을	살	머	유	佛	머	디	보	法	합	보	오	해	호	山	살	典
을	은	슬	로	불	들	구	디	법	掌	薩	오	상	보	산	의	원
오	교	겨	로	子	집	더	호	王	장	할	神	네	디	애	勇	과
法	교	說	衆	지	고	能	보	항	호	이	신	이	欲	드	용	외
법	化	설	중	定	다	능	薩	을	야	의	便	通	욕	리	極	흔
鼓	화	法	爲	딩	受	히	살	讀	千	편	통	禪	여	佛	精	외
고	호	법	위	慧	슈	諸	이	찬	천	安	得	선	회	불	精	오
타	며	호	호	해	持	제	智	歎	萬	안	득	定	여	道	정	며
마	應	야	야	기	디	佛	디	탄	만	히	호	뎡	뎡	도	進	호
마	應	야	야	기	디	佛	디	탄	만	히	호	뎡	뎡	도	進	호

又見菩薩。寂然宴默。天龍恭敬。

不以爲喜。又見菩薩。慶林放

光。濟地獄苦。令入佛道。又見佛

子。未嘗睡眠。經行林中。勤求佛

道。又見具戒。無缺。淨如

寶珠。以求佛道。又見佛子。住忍

辱力。增上慢人。惡罵捶打。皆

悉能忍。以求佛道。又見菩薩。離

諸戲笑。及癡者。屬正親近智者。一

心除亂고攝念山林하億千萬歲를以

求佛道하或見菩薩이看饌飲食과百

種湯藥로施佛及僧하名衣上服이價

直千萬과或無價衣로施佛及僧하千

萬億種栴檀寶舍와衆妙卧具로施佛

及僧하清淨園林에花果와茂盛하流

泉浴池로施佛及僧하如是等施十種

種微妙로歡喜無厭하未無上道하或

有菩薩이說寂滅法하種種教詒無數

衆生여호或見菩薩이觀諸法性。無有

二相이호猶如虛空이又見佛子。心無

所著이호以此妙慧로求無上道이

소보디
안하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디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호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호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호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호
경하
디
광하
호
佛
야
로
보
여

호	와	한	만	싸	만	난	텃	음	며	차	물	친	홍	홍	하	르	력
東	중	激	億	와	산	옷	기	食	또	찬	덜	近	春	보	太	마	에
동	의	미	억	중	니	爲	외	식	보	萬	오	근	권	薩	마	모	住
山	개	묘	種	의	와	위	중	과	디	만	밋	하	屬	살	佛	다	듀
산	布	묘	홍	개	시	頭	의	온	菩	淺	수	야	속	의	불	리	하
애	보	호	拈	布	혹	두	개	가	보	殊	프	하	여	룡	道	구	야
곳	施	타	선	보	값	흔	布	짓	薩	를	레	마	의	담	도	지	쥬
과	시	와	檀	施	업	오	보	탕	살	佛	念	스	오	우	求	즈	중
菓	하	具	단	시	슨	시	施	탕	이	불	념	로	만	습	구	며	上
과	며	구	寶	하	오	갑	시	藥	有	道	을	자	로	과	하	터	상
實	淸	로	보	며	스	시	하	약	효	道	자	어	어	迷	며	도	慢
실	청	부	舍	手	로	시	하	요	饒	求	바	즈	자	마	또	다	만
외	淨	터	사	천	부	천	일	로	선	구	億	러	를	感	보	능	엇
호	정	사	화	萬	터	萬	홍	부	飲	하	억	우	親	혹	디	능	까

상호며 흐르는 심과沐浴浴호는
 모호로 부터의와총의거布보施기
 호야이러듯호호布보施시
 종徽마묘묘로기거슬호머업
 무상상道도求구호며또善보
 이寂석滅멸法법닐어種종
 로無무數수衆중生싱을구리
 또보되善보薩살이諸椰法법
 이두相상업수미虛허空공근
 보며또보되佛불子조스매著
 특흔디업서이妙묘도慧혜로
 無무上상道도求구호며

文殊師利 하 又有菩薩의 佛滅度後 에

供養舍利 호 소며 又見佛子 造諸塔廟

無數恒沙 호 嚴飾國界 니 寶塔의 高妙

約약五오千천由유旬순 여이縱종廣광 이正정等등 히二이千천由유

旬순 여이一일塔탑廟묘 에各각千천幢幢幡幡 여이珠주交교露로

幔만 여이寶보鈴령 이和화鳴명 은 여이諸주天천龍룡神신人인及및

非비人인 이香향華화夜야祭제 로常상 이供공養양 여이文문殊수

師사利리 하諸주佛불子자等등 이爲위供공舍사利리 아嚴엄飾飾

塔탑廟묘 나國국界계 나自자然연 히殊수特특妙묘好호 야如유

天천樹수王왕 이其기華화 나開개敷부 이 ○ 文 殊

利利리 하도 선善선 보보 살살 이부 터터 滅滅 멸멸 度度

도도 신신 後後 후후 에에 舍舍 가가 利利 리리 를를 供供 공공 奉奉

향향 호호 오오 며며 도도 보보 디디 佛佛 불불 자자 의의 사사 를를 망망 고고

탑탑 묘묘 는는 무무 수수 불불 사사 를를 망망 고고

我及衆會見此國界의 種種殊妙며

제 프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소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불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호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寵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룡	비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이 머 머 머 머 머 머 머 머 머 머 머 머	廟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은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천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塔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라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다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하 고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 佛 放 一 光 니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諸佛神力과智慧一希有非放一淨光

非照無量國니我等이見此고得

未曾有이다佛子文殊하願決衆疑고

四衆이欣仰야瞻仁及我니世尊

何故로故斯光明이佛子一時

答非決疑令喜고何所饒益로演斯

光明이佛坐道場야所得妙法을

為欲說此이為當授記이示諸

佛土의衆寶嚴淨며及見諸佛오

此非小緣이다로소
文殊하當知서호쇼

四衆龍神의 瞻察仁者나호나爲說何等

잇고시리 ○ 부테호光광을퍼시나와
모든會회이國국累계의

種善種종종으로微미妙묘호물보며
諸佛불神神力力과智디慧혜

希의有유호샤호조호光광온퍼샤
無부량량國국은비취시니우리들

하이를보습고未미曾중有유를得
득호노이다佛불子子호文文殊슈하

影원호디모든衆衆의心심을決결하
쇼셔四次象象의즐겨올위러仁인

과날와보나世세尊존이엇던전
杰로의光光朋朋을퍼시나엇고

佛心심을決결하야갓게답호샤
의佛心심을決결하야갓게답호샤

法華經卷第一

三

佛	不	說	諸	法	甚	深	微	妙	難	解	難	入	諸	佛	甚	深	微	妙	難	解	難	入
者	不	說	諸	法	甚	深	微	妙	難	解	難	入	諸	佛	甚	深	微	妙	難	解	難	入

○爾時文殊師利菩薩摩訶薩及諸大士善男子等
 欲說大法 吹大法螺 擊

薩摩訶薩及諸大士善男子等

如我惟付앤今佛世尊이欲說大法

雨大法雨吹大法螺擊

大法鼓며演大法義다諸善男子아

我於過去諸佛에曾見此瑞오放斯

光已이即說大法다是故當知라

今佛現光도亦復如是라欲令衆生로

咸得聞知一切世間難信之法호

故現斯瑞니○師스利리文문殊殊淨淨

마勸勸大大士士○의摩摩訶訶利利文文殊殊淨淨

諸子子大大士士○의摩摩訶訶利利文文殊殊淨淨

法兩兩尊尊法法鼓鼓○의摩摩訶訶利利文文殊殊淨淨

부로로시시며며○의摩摩訶訶利利文文殊殊淨淨

<p>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p>	<p>日月燈明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p>	<p>識阿僧祇劫<small>에</small>爾時<small>에</small>有佛<small>디</small>號<small>샤</small>一</p>	<p>諸善男子<small>아</small>如過去無量無邊不可思</p>	<p>아드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 어瑞러애를나도차는니라</p>	<p>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 간샤에셔信신호마어려운法世間</p>	<p>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 부터光光明이명다삼도알또아은호</p>	<p>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 광明明을파이결사면즉재큰法법을니</p>	<p>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 男남子조동하내過과세뜻다善선</p>	<p>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 法법義의를펴고저호세뜻다善선</p>
------------------------	------------------------	--	---------------------------------------	---	--	--	--	--	--

世尊

이러니 ○ 去善 천남 무량 아 僧 호 일 일

劫 불 에 그 부 려 사 의 號 호 일

일 월 월 燈 등 명 여 來 리 應 우 供

공 정 정 遍 변 知 디 明 명 行 행 은 족 善

연 逝 사 世 세 間 간 解 해 無 무 上 상 土

中善後善

이러니 其 識 深 遠 其 語

一 巧妙

여 시 純 一 無 雜 具 足 淸 白

梵行之相

為 求 聲 聞 者 說 應 四 諦

法度生老病死

究 竟 涅槃 為

未辟支佛者사說應十二因緣法여시

為諸菩薩사說應六波羅蜜사令得阿

耨多羅三藐三菩提야成一여切種智케

라시더 ○ 正正法법법을퍼니리샤디初초

시니그쁘디김교머르시며그마리

고공巧크코徽미妙묘시며純純

一 일 호 사 첫 근 것 업 스 시 며 청 청

성聞문來구호릴為위호샤샤四스諦

그여病場호며주구물度도脫탈호

샤究구竟淨닐槃반케호시며辟

삼支지佛불求구호릴為위호샤十

니르세며諸제품보출산爲위하샤
六류彼바羅라密밀은應웅하야니
르샤阿아辨족多다羅라三삼藐막
스삼善善보提提得득하야一일切
체種종智디를일
우배하세더라

次復有佛

디하샤

亦名日月燈明

이시

次

復有佛

디하샤

亦名日月燈明

이시

如是二

萬佛。皆同一字

하샤號

日月燈明

이시

又同一姓

하샤姓

頗羅墜

이시彌勒

當知初佛後佛

이시皆同一字

하샤名

日月燈明十號

具足

고하

所可說

法_은初中後善_시이니_러其最後佛_의未出
家時_에有八王子_니더_러一名有意_오二
名善意_오三名無量意_오四名寶意_오
五名增意_오六名除疑意_오七名響意_오
八名法意_니是八王子_의威德_이自
在_하各領四天下_하是諸王子_의聞
父_가出家_하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_고
悉捨王位_고亦隨出家_하發大乘
意_하常脩梵行_하皆爲法師_니已於千

萬佛所

植諸善本

라

○

테버켜샤도디부

또일후미실월월
며버거소부예켜샤디소일후미시

실월월燈등明明이샤이
萬만佛불이과호간지로호호字조시

샤號호가지로호호姓성이
며또호호가지로호호姓성이

頗파羅라墮와러시니
아반과기알라척부러후
다호가지로호호字조시

실월월燈등明明十십號호
시고니르시노法법은初초
후쇼현아러시니못後후

출家가아터니야겨산재
子스아터니야겨산재

의오二시名명은善선
의오二시名명은善선

名명은無무량意의
名명은無무량意의

去去至一

二五

은寶보 意의 오五 오名명 은除더 疑의 意의 오

은法법 意의 러니 이여 王王 意의 오

은威위 德덕 어自自 在在 領領 意의 오

이王왕 子子 不不 下下 在在 領領 意의 오

가三삼 阿阿 아轉轉 多多 다羅羅 三三 삼

출고 王王 보提提 得得 득하 三三 삼

출야 家家 가대 乘乘 승승 八八 팔팔 法法 법

是時 日月燈明佛 說大乘經 佛所護念

名 無量義 教菩薩法 佛所護念

라 이 說 是 經 已 고 하 시 即 於 大 衆 中 에 結 跏

趺 坐 하 入 於 無 量 義 處 三 昧 하 身 心 이

不 動 하 是 時 에 天 雨 曼 陀 羅 華 摩

訶 曼 陀 羅 華 曼 殊 沙 華 摩 訶 曼 殊 沙 華

而 散 佛 上 과 及 諸 大 衆 하 普 佛 世 界

六 種 震 動 하 爾 時 會 中 에 比 丘 比 丘

尼 優 婆 塞 優 婆 夷 와 天 龍 夜 叉 乾 闥 婆

阿 脩 羅 迦 樓 羅 緊 那 羅 摩 睺 羅 伽 人 非

人 과 及 諸 小 王 과 轉 輪 聖 王 等 是 諸 大

衆이得未曾有아歡喜合掌아一心觀

佛아爾時如來아放眉間白毫相光

照東方萬八千佛土아靡不周遍아

如아今所見是諸佛土아라아○아實아이아백아월아

燈아등아시아니아일아후아미아無아무아량아義아의아니

菩아護아호아念아념아하아치아는아배아라아이아經아경아니

리아시아고아곧아대아衆아중아등아에아結아결아處아

가아跌아부아坐아좌아하아사아無아무아량아義아의아處

만아석아만아다아로아라아화아만아만아殊아슈아사아華

니	취	方	간	보	합	미	聖	신	라	슈	룡	婆	등	가	비	비	화
오	샤	방	白	습	합	曾	성	과	摩	羅	夜	婆	에	지	흐	허	화
는	周	萬	백	더	掌	王	王	또	마	라	야	塞	로	로	며	부	마
보	주	만	毫	니	장	有	황	諸	諸	迦	叉	스	震	니	터	訶	하
논	遍	八	호	그	하	유	들	저	후	가	차	비	진	분	우	하	만
이	번	팔	相	야	하	를	이	小	羅	樓	乾	요	動	부	과	만	만
諸	티	千	光	하	하	得	모	王	如	羅	闍	우	동	터	모	만	만
저	아	천	佛	스	하	득	든	王	가	羅	達	婆	비	세	든	만	만
佛	니	佛	광	스	하	하	대	와	인	라	婆	夷	구	늘	대	만	만
불	하	불	올	로	하	야	대	과	신	緊	바	이	니	그	대	만	만
土	디	土	피	로	하	歡	대	轉	輪	緊	바	와	니	그	대	만	만
토	업	토	차	로	하	환	대	輪	輪	緊	바	와	니	그	대	만	만
스	스	를	東	로	하	환	대	輪	輪	緊	바	와	니	그	대	만	만
근	시	동	동	로	하	환	대	輪	輪	緊	바	와	니	그	대	만	만

라더 ○彌勒 아 當知라 爾時會中 에 有

二十億菩薩 이 樂歎聽法 니 더 是諸菩

薩 이 見此光明 의 普照佛土 고 습 得未

曾有 야 欲知此光 의 所為因緣 라 더

彌 미 勒 르 크 아 반 드 심 億 억 품 보 薩 살 이

法 법 든 즘 고 저 허 더 니 이 모 든 품 보

薩 살 이 이 광 광 명 의 佛 불 토 토 른

너 비 비 처 사 문 보 습 고 未 미 曾 승 有

유 를 득 득 허 야 이 광 광 의 為 위 허 산

因 인 緣 원 을 아

時 有 菩 薩 名 曰 妙 光 有 八 百 萬 子

是時日月燈明佛從三昧起

因妙光菩薩說大乘經此名

妙法蓮華教菩薩法佛所護念

○그妙묘光광菩薩보살說이法법也의

佛불說이三삼昧매也의

乘승經경을니라시니일후후미미妙묘요

法법법법蓮연華화也의며부터터護호念념함

法법蓮연華화也의며부터터護호念념함

六十小劫不起于座是時會聽者

亦坐一處하六十하小劫하身心하아不

動하聽佛所說하오스謂如食頃하디是

時衆中하에無有一人하도若身若心하에而

生懈倦하라하디

아니룩하하얏거시늘그제모든들조올

소름도또흔고대안자하룩하십소

야만부터니리샤물든조오디법머클

사름도모매나미스매

日月燈明佛이於六十小劫에說是經

已고하시 卽於梵魔沙門婆羅門과及天

人阿脩羅衆中에而宣此言하사 如來

於今日中夜에當入無餘涅槃하리

日일 小소 金진 劫劫 焰염 明명 佛佛 六六 十十

文문 天천 人인 沙사 門문 婆보 羅라 衆중

中중 夜야 中중 夜야 當당 入입 無무 餘유 涅협 槃반

에은 溫온 濕습 로로 리리 라라

時有菩薩호名曰德藏이러 日月燈明

佛이 卽授其記하告諸比丘하是德

法華經卷一

藏菩薩이 次當作佛야號曰淨身多陀

阿伽度阿羅訶三藐三佛陀라리佛이

授記已고○此便於中夜에入無餘涅槃

나라시○그德덕藏장장이이이소덕일후

燈동明佛불이즉재記괴를심기

德덕藏장총보薩살이버커반드기

부태드외야일후미淨淨身신多다

三삼藐약삼삼佛불陀타리라訶하

佛滅度後에妙光菩薩이持妙法蓮華

經하滿八十小劫히為人演說니 하日

月燈明佛ハ八子一皆師妙光늘 하 야妙

光이教化하令其堅固阿耨多羅三藐

三菩提니 케 하是諸王子非供養無量百

千萬億佛已고 하 습皆成佛道니 하 시其最

後成佛者一名曰然燈니 하 세○

부 터滅別度도 하 신後후에妙묘光

광善보蔭살이妙묘法법蓮蓮華화

經경을디척ハ 팔十십小소劫劫이
다妙묘光광을스송사마는妙묘光

法華經卷一

광이敎五化화호야아釋라삼삼藐막삼삼솔보提테에곤
 게호녀이王왕子子조조호호無무량
 百백千천萬萬만億억佛佛불은供공養
 양호습고다佛佛불도를일우시니
 그뒤後淳A成성佛佛불호시니일후
 미然연燃燈등
 아시니라

八百弟子中有一人호號曰求名러이

니貪著利養호雖復讀誦衆經호而
 不
 通利호多所忘失호故號求名러이

是人도亦以種諸善根因緣故로得值

無量百千萬億諸佛호供養恭敬尊

無量百千萬億諸佛호供養恭敬尊

重讚歎중증안니라

○八팔百백第第子子
中중에호차근미이

소디일후미求구名명이러니
이슈를養탐참되호야비혹호한經

경을불러외위도通통利리티몬호

야니저일후미만호시일후미求구

名명이러니이차롬도호여림가짓

호선根근因인緣緣을심판전대로

無무량 많음복주천萬만億억諸諸

佛불을맛나호와供공養양恭공敬

경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彌勒아當知爾時妙光菩薩이豈異

人乎호我身이是也라求名菩薩은

沒身이是也라今見此瑞호與本無

異이시는 실은 是故로 惟한 付는 今날 日은 如래 來하 一

當說大衆經이 名이 妙法蓮華의 教인

菩薩法에 佛所護念이라

彌이 勒을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光은 廣한 善한 寶물 薩의 婆의 提의 多의 羅의 漢의 經을

說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實은 妙한 法인 蓮의 華의 經을

說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佛이 所가 護는 念하 一

爾時文殊師利가 於大衆中에 欲重宣하

명이라 시나 세 계 등 존 이 법 법 을 퍼
니라 사 무 무 량 광 영 생 과 무 무

數 수 덕 의 품 보 薩 舍 는 濟 濟 度 도 ㅎ
사 부 덕 습 다 慧 解 에 들 에 ㅎ 제 度 도 ㅎ

부 說 出 出 家 가 아 니 ㅎ 大 聖 生 의
ㅎ 산 여 들 王 法 子 次 大 聖 生 의

出 出 家 가 ㅎ 法 門 보 습 고 佛 說 經
조 차 梵 行 行 行 은 法 門 이 나 佛 說 經

時佛이說大乘이시經名은無量義나

於諸大衆中에而為廣分別나라佛說

此經已고시即於法座上에跏趺坐三

昧나시名이無量義處나天雨曼陀華

時天鼓이自然鳴이諸天龍鬼神이供

養人中尊

오며

一切諸佛土

即時大

震動

늘

佛放眉

間光

現諸

希有事

나

○

그

經

부

태

大

乘

승

너

모

든

대

衆

중

등

에

위

가

경

니

부

호

삼

법

범

의

일

후

미

無

무

량

의

의

의

하

해

사

만

다

화

를

비

하

하

부

자

然

연

을

며

諸

尊

하

동

부

즉

시

에

하

장

震

하
여
러
가
것
希
의
有
유
출
어
를
나
토

나○此光이照東方萬八千佛土

示一切衆生의生死業報處

諸佛土以衆寶莊嚴琉璃頗梨色

斯由佛光照及見諸天人龍神

夜叉衆乾闥緊持羅各供養其佛

又見諸如來自然成佛道身色

如金山端嚴甚微妙如淨瑠

璃中內現真金像世尊在大衆

敷演深法義一一諸佛土聲

○ 中 諸 師 比 丘 王 山 林
○ 中 諸 師 比 丘 王 山 林

戒 開 羅 多 羅 明 珠 護 持 布
戒 開 羅 多 羅 明 珠 護 持 布

보 施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보 施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수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수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보 明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보 明 恒 忍 辱 行 行 護 光 數

야 無 功 上 道 外 未 知 見 亦 見
야 無 功 上 道 外 未 知 見 亦 見

덕 諸 善 佛 薩 各 各 國 滅
덕 諸 善 佛 薩 各 各 國 滅

爾 時 四 部 衆 見 日 月 燈 佛 現 大 神
爾 時 四 部 衆 見 日 月 燈 佛 現 大 神

通 力 其 心 皆 歡 喜 各 各 自 相
通 力 其 心 皆 歡 喜 各 各 自 相

問 何是事 何因緣

어신고
덕니

그 佛 불이 큰 神 신 通 통 이 日 일 인 月 월 燈

물 보 습 습 고 그 미 스 미 다 歡 한 喜 희 의 호

약 各 각 各 각 緣 연 서 르 무 로 덕 이 어 리

天人所奉尊 適從三昧起 讚妙光

菩薩汝 為世間眼 一切所歸

信能奉持法藏 如我所說法

唯汝能證知 世尊 既讚歎

令妙光歡喜 ○ 天 尊 人 心 위 앞 좁

라니 ○佛說是法華令衆歡喜已

고 尋即於是日告於天人衆諸

法實相義已爲汝等說我今於中

夜當入於涅槃汝一心精進

當離於放逸諸佛甚難值億

劫時一遇世尊諸子等

聞佛入涅槃各各懷悲惱佛滅

一何速 ○ 부득이 법 범 華 화

歡 환 흥 희 케 호 시 고 미 조 차 곧 이 나
대 夫 天 人 衆 中 의 皆 나 르 샤 다 諸

저法법實실相상니내아제밖중등에
為위호야날오니내아제밖중등에
반도기涅닐槃반에드리로리니네
미스미로精精進進호야반드기放
방逸일올여희라諸저佛불이甚심
히맛나미어려운디라億억劫劫에
사그제흔번맛나니라호야시늘
세尊존人諸저子子들러부태涅
불篠반에드르샤를든좁고各各
악슬픈설운쁘들머거부터滅멸度
도호샤히엇더변
관신고호다나

聖主法之王이安慰無量衆다샤我若

滅度時에汝等이勿憂怖라是德藏善

薩이於無漏實相에心已得通達나其

次에 當作佛야 號曰 爲淨身야 亦度無

量衆호리라佛이 此夜에 滅度야 如薪

盡火滅호케시分布諸舍利와 而起無

量塔호습比丘比丘尼 其數 如恒

沙호하倍復加精進야 以求無上道

라 ○ 聖호성衆호승을 便호법安호안히 慰호위勞호로

호샤되 내 滅호멸度호도호는 제너희 들이

서름호야 두리디 말과 아德호덕덕藏호창

호보살이 漏호루업스 實호실雜호잡生호생에
호미호마 通호통達호달을 得호득호니
호次호차大호대第호대의 반기 부테 호외야
호호 淨호정淨호정신이 드외야 호호 무

量량 象象 種種 을을 統統 度度 度도
 고부 則則 이이 바바 의의 減減 滅滅 도도
 다아 브브 리리 無無 量量 塔塔 리리
 分分 布布 보보 와와 無無 量量 塔塔
 舍舍 舍舍 比比 丘丘 比比 丘丘 尼尼
 數數 수수 恒恒 恒恒 沙沙 舍舍 舍舍
 上上 道道 進進 進進 進進 進進 進進
 히더 옥 옥 精精 精精 進進 進進 進進
 上上 道道 進進 進進 進進 進進 進進

是妙는光은法은師은 奉持佛은法은藏은 八十은小은

劫中에 廣宣法華經을 是諸八王子라

妙光所開化라 堅固無上道야 當見라

無數佛과 供養諸佛已고 隨順行을

大道야 相繼得成佛사 轉次而授記시

니 最後天中天 이 號曰然燈佛 니 아 시 諸

仙之導師 度脫無量衆 니 하 시

이 妙 光 法 師 스 一 部 法 劫
藏 妙 光 法 師 스 一 部 法 劫

더 니 이 八 法 華 經 을 너 비 劫
더 니 이 八 法 華 經 을 너 비 劫

의 耶 教 化 無 數 佛 不
의 耶 教 化 無 數 佛 不

을 보 스 와 諸 佛 供 養 양 스
을 보 스 와 諸 佛 供 養 양 스

로 授 記 과 하 시 니 後 天 佛 不
로 授 記 과 하 시 니 後 天 佛 不

어 시 니 諸 仙 然 燈 佛 不
어 시 니 諸 仙 然 燈 佛 不

라 是 妙 光 法 師 一 時 有 一 弟 子 더
라 是 妙 光 法 師 一 時 有 一 弟 子 더

心常懷懈怠貪著於名利하디求

名利無厭하多遊族姓家하棄捨所習

誦하廢忘不通利하以是因緣故로號

之為名하亦行衆善業하得見無數

佛하供養於諸佛하隨順行大道

具六波羅蜜하今見釋師子하其

後에當作佛하號名曰彌勒하廣度

諸衆生하其數無有量하

이妙묘光광法법師사그제하弟
내子자不조를를뒀뒀다다니니미미상상네네게게은

우름머거름명리니명리니구호물슬티아비
더니명명리니求구호물슬티아비

화외오름브려니저통통利니티몬
화외오름브려니저통통利니티몬

홀제이인緣연으르일후미求구
홀제이인緣연으르일후미求구

名명이러니또한도흔業업을行행
名명이러니또한도흔業업을行행

佛불을徒공養양호스와조차順順
佛불을徒공養양호스와조차順順

羅라窟밀이거자이제釋釋師師波巴
羅라窟밀이거자이제釋釋師師波巴

諸저衆중生싱을너비濟濟度도
諸저衆중生싱을너비濟濟度도

彼佛滅度後에懈怠者는汝是妙
彼佛滅度後에懈怠者는汝是妙

先法師者는今則我身이是라我見燈
先法師者는今則我身이是라我見燈

明佛인本光瑞이如此을以是로知

今佛이欲說法華經노

터 부터滅의도 후에度후法범師에

르 부터滅의도 후에妙묘光광法법師범

이 제 내 모 미 이 광 내 등 명 불光광瑞瑞燈등明명佛불

은 보공을 지 일로 이 져 부 태 법 범經경을을니니고고저저샤샤물물아아습습노

方便이如本瑞이是諸佛인

義의諸入이今當知야合掌一心待

佛當雨法雨하克足求道者리

諸求三乘人。若有疑悔者。佛當為

除斷。令盡無有餘。

이제 상의 본분 瑞계 근하시니 이

諸佛불의 본분 瑞계 이하시니 이

제부태광 照명을 悉實相 상

르미이제 반의 아라 합掌 상

반드기 法 再우를 비흐샤 道 求

구호릴 充 求 一 홀 샤 리 니 모도

의심심 求 一 홀 샤 리 니 모도

다기위호샤 더르샤 그츠샤

妙法蓮華經方便品第二

爾時世尊。從三昧安詳而起。○

그 때에 세존이 삼매에서 일어나서

告舍利弗。諸佛智慧甚深無量。

其智慧門難解難入。一切聲聞。

辟支佛所不能知。○

舍利弗가 이르니 그 때에 세존이 이르시니

佛의 지혜의 문은 심히 깊고 그 지혜의 문은 아로미어려우며 드루미어려워 하나

一切의聲聲을 능히 아디 못하리라

所以者何。佛。曾親近百千萬億無

數諸佛。盡行諸佛無量道法。勇猛

精進。名稱。普聞。成就。甚深。未曾

有法。隨宜所說。意趣。難解。

엇테어고부테아리百억의無무數수諸제佛불을親친近

근호야諸제佛불人그지압스도

法법을다行행호며勇용猛猛精精

進進호야名명稱稱이녀비들이며

甚심히기편아리잇다아니탄法법

舍利弗。吾。從成佛已來。種種因

爲 ① 種種譬喻로 廣演言教 ② 無數方

便로 引導衆生 ③ 令離諸著 ④ 所以

者何 ⑤ 如來 ⑥ 方便 知見 波羅蜜 ⑦ 皆

已具足 ⑧ ⑨ ⑩ 舍刹利 ⑪ 佛 ⑫ 不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舍利弗 ① 如來 ② 知見 ③ 廣 ④ 大 ⑤ 深 ⑥ 遠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無量과無礙와力과無所畏와禪과定

解脫와三昧에深入無際야成就一

切未曾有法라니 ○舍利弗나弗를知다

見견견이나고 크고 힘과 무무所소

畏외와禪선과定정과解해脫탈와

일일切일未미曾중有유라

舍利弗아如來가能능種種종종分別구분巧說

諸法다言辭다柔연軟한悅기可한衆心다

라 ○舍利弗나佛불은 아아如여來리諸다法법能

法법범을工공巧교巧교이니라 말스
미보드라와모든스대기보니라

舍利弗取要言之아無量無邊未曾

有法佛悉成就을○舍利弗

외요볼자바니르견댄無무量량無
무邊변未미법중有유法법을부데

다일유○止舍利弗不須後說

所以者何佛所成就第一希有難

鮮之法唯佛與佛乃能究盡諸法

實相하라○佛與佛乃能究盡諸法

잇테어노부터일은第데일잇이
슈마드문아로외어려운法법은오

적부터와부터와와能능히諾제
法법實실인相상온다아니니라

所謂諸法의 如是相과 如是性과 如是

體와 如是力과 如是作과 如是因과 如

是緣과 如是果와 如是報와 如是本末

究竟속라이 ○ 相상온諸제法법의이곤은

곤은體體와이곤은力力과이곤은緣緣

作작과이곤은因因과이곤은緣緣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而說偈言

○ 그世世等은이이브들다시
다의 偈言을나르샤디

世雄고不可量라諸天及世人과一切

衆生類고無能知佛者고佛力無所畏

及佛諸餘法고無能

測量者고本從無數佛고具足行諸

道고甚深微妙法고難見難可了고

於無量億劫고行此諸道已고道場得

成果고我已悉知見고

世世고雄고勇고은고혜고아고라고디고몸고홀고디고라고諸

제天고천고과고세고계고간고인고차고룸고과고일고일

切切고제고생고생고신고類고행고력고과고능고능고히고부고터

畏의와解의脫탈의諸제三삼昧의
 악쓰부텃녀나문法법을能능히
 아리리업스니라本來의無무數
 수佛불을從從중하야本來의無무數
 를行行하야甚심히기끈佛의妙妙
 法법이보미어려우며아로미어려
 우니라無무量량億億劫劫에이諸
 제道도를行行하야道도場場에果
 과일우물어두나
 내하마다아노라

如是大果報와種種性相義를我及十

方佛이乃能知是事나라是法은不可

示의言辭相의寂滅나라諸餘衆生類

無有能得解라니除諸菩薩衆의信力

堅固者

고

諸佛弟子衆

이

曾供養諸佛

야

一切漏

已盡

住

是最後身

如

如

是諸人等

其力

所不堪

라

이

佛性

이 근 근 큰 큰 과 과 보 보 와 와 십 십 방 방 불 불
성 상 상 상 상 들 들 나 와 십 십 방 방 불 불
이 근 근 큰 큰 과 과 보 보 와 와 십 십 방 방 불 불

이 사 능 능 히 히 이 이 룰 룰 아 아 니 니 라 라 이 이 법
법 은 은 어 어 루 루 보 보 다 다 몬 몬 하 하 리 리 며 며 말 말 삼 삼 상 상
어 과 외 외 히 히 업 업 스 스 니 니 녀 녀 나 나 문 문 증 증 생 생
類 유 | 能 능 히 히 알 알 리 리 업 업 스 스 니 니 라 라 諸 諸 著 著

善 보 薩 薩 衆 衆 信 信 心 心 力 力 력 력 구 구 드 드 니 니
善 보 薩 薩 衆 衆 信 信 心 心 力 力 력 력 구 구 드 드 니 니

佛 佛 諸 諸 佛 佛 弟 弟 子 子 不 不 衆 衆 中 中 一 一 人 人
佛 佛 諸 諸 佛 佛 弟 弟 子 子 不 不 衆 衆 中 中 一 一 人 人

佛 佛 漏 漏 已 已 盡 盡 住 住 是 是 最 最 後 後 身 身 如 如
佛 佛 漏 漏 已 已 盡 盡 住 住 是 是 最 最 後 後 身 身 如 如

모 매 住 住 已 已 盡 盡 住 住 是 是 最 最 後 後 身 身 如 如
모 매 住 住 已 已 盡 盡 住 住 是 是 最 最 後 後 身 身 如 如

假使滿世間아皆如舍利弗아盡思共

度量도不能測佛智며正使滿于

方이皆如舍利弗며及餘諸弟子리亦

滿十方刹야盡思共度量도亦復不

能知며○호다가世間간아도

근호야고장스랑호야모다혜아리
도능능히부텃
智다를아다
몬호리

며正聲히十
심方방애
고득호나
다

諸弟디子스十
方方刹
刹

아려도호
리며

辟支佛利智。一無漏最後身。亦滿十
方界。其數。如竹林。斯等。共一
心。於億無量劫。欲思佛寶智。
莫能知少分。新發意菩薩。供養
無數佛。了達諸義趣。又能善說法
如稻麻竹筴。充滿十方刹。
一心以妙智。於恒河沙劫。咸皆共
思量。不能知佛智。不退諸善
薩。其數。如恒沙。一心共思求。

久後에 要當說真實니라

승사刹利리弗불아반드기알라諸저
佛불의파리달오미업스니부터닐
온法법에반드기큰信신力력을낸
을다다世세尊존이法법오란後후
에모로대眞眞實實
실을니라니라

告諸聲聞衆과 及求緣覺乘의 我令

脫苦縛야 逮得涅槃者니 佛以方

便力로 示以三乘教는 衆生이 處處者

引之야 令得出니

諸저聲聲聞문衆중과正緣緣覺과
表구호는乘승의내受受法法코어리미

요매버서濕불槃반미처得득게호
카르의게나르노니부태方방便便
力력으로삼乘승교론보요문
衆중生싱이끈고대着탁호시하나
게호다
나라 ○爾時大衆中에 有諸聲聞

滿盡阿羅漢阿若憍陳如等千二百人

及發聲聞辟支佛心호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各作是念호今者世

尊何故로殷勤稱歎方便호而作是

言호佛所得法이甚深難解며有所

言說이意趣難知라一切聲聞辟支

佛의 所不能及 시라 하

그 佛 大 衆 中 阿 羅 漢 諸 聲 聞

文 滿 魯 大 阿 羅 漢 千 二 佛

佛 人 心 發 覺 聲 聞 辟 支 佛

佛 心 心 發 覺 聲 聞 辟 支 佛

尼 心 心 發 覺 聲 聞 辟 支 佛

世 各 各 各 各 各 各 各 各 各 各

方 便 變 易 變 易 變 易 變 易 變 易

이 甚 心 心 心 心 心 心 心 心 心 心

能 切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佛 說 一 解 脫 義 我 等 亦 得 此 法

佛 說 一 解 脫 義 我 等 亦 得 此 法

至於涅槃니호而今에不知是義所趣로

다호 ○ 부테 니르니 호는 辭하脫된義
디니 ○ 의를 우리도 또 이法법을得드

호야 涅辨槃반애다드호로니호는이
블카산될아디몬호스호리호다호

○爾時舍利弗이知四衆心疑며

自亦未了야호而白佛言호스디世尊하何

因何緣로殷勤稱歎諸佛八第一方便

甚深微妙難解之法니호스니호고我自昔

來애未曾從佛와호스聞如是說다호아스

者四衆이咸皆有疑니호스惟影世尊이

自說 <small>사</small> 稱歎 <small>하</small> 所行道 <small>다</small> <small>사</small> 智慧甚微妙	可測 <small>사</small> <small>이</small> <small>도</small> 亦無能問者 <small>논</small> <small>어</small> 無問而	道場所得法 <small>을</small> 無能發問者 <small>며</small> 我意難	禪 <small>과</small> 定 <small>과</small> 解脫等不可思議法 <small>사</small> <small>며</small>	自說 <small>다</small> <small>사</small> 得如是力 <small>과</small> 無畏 <small>와</small> 三昧 <small>와</small>	해日 <small>이</small> 실大 <small>대</small> 법 <small>법</small> 범은 너크세니 라	들다잇고그피려하승가 처리弗블이이 디慧	심深심微마묘요難난解히法법을 브즈러니일크라讚讚歎탄하 시는	퍼쇼셔世世尊은 이잇던전太로 불
--	--	---	---	--	--	----------------------------	--------------------------------------	------------------------

야諸佛之所得 실이라 하

스개니그샤디이곤호력과無무
畏외와삼삼昧의와禪선과定境과

解하脫달等등不블可카思스識의
法법을得득호라호시며道도場場

내得득호산法법을能능히문조음
내리워스며내쁘다혜아료미어려

우니라호샤도호能능히문조오리
업거늘문조오리업지조까니그샤

行행호산道도를일극라讚讚歎歎
호샤다智디慧혜甚심微미妙묘

호야諸저佛佛得得득
호산거기라호실의

無漏諸羅漢及求涅槃者今皆墮

疑網야佛이何故說是호신고其末緣譽

者比丘比丘尼

와 諸天龍鬼神

及乾

闍婆等。相視懷猶豫

야瞻仰兩足尊

하니是事

為云何

고

影佛

이為解

說 하니

○ 漏루업스羅라漢한돈과

이제다疑의心심니크르니레벼러디

여부태엇던전太로이리니크르니레벼러디

고호며그緣연覺각求구호는니비

용鬼귀神신과사乾건闍달婆바等

량足족尊존을올위러보습니니이
이리엇테잇고影원호스오디부태
為나위호사사
겨나위호사사

於諸聲聞衆에佛說我를第一이라라거

我今自於智에疑感하不能了하이다에為

是究竟法가이이는이為是所行道가이잇佛口

所生子一合掌瞻仰待하니니影出微妙

音非時為如實說하쇼

모든聲聲聞문衆중에부테나르가
되나를第데一은이라거신마른내

이제내첩다에疑의感후하야와다
문하어이다이究구竟경法범이잇

가이行행하시던道도잇가부터
이베서난아득리합掌장하스외

하올위러보스외기드리습느니影원
하스오디微미묘모하소릴내샤

다이니리소처

諸天龍神等。其數一。如恒沙。求佛

諸菩薩。大數一。有八萬。又諸萬億

國。轉輪聖王。至合掌以敬心。

欲聞具足道。○諸神天龍等

恒沙。求佛。大數一。有八萬。又諸萬億

轉輪聖王。至合掌以敬心。

恒沙。求佛。大數一。有八萬。又諸萬億

爾時佛。告舍利弗。止止。不須

復說라이니若說是事면一切世間諸天

及人의皆當驚疑라하리

그예부테송샤利리弗블드려니라
샤진말라말라구되의다시니라
다마를다니라하다가이름니려면
일切제세계間간諸저天과사
미다반근계늘라
경의심심하라

舍利弗의重白佛言오다世尊하惟影

說之惟影說之하所以者何고是

會에無數百千萬億阿僧祇衆生이曾

見諸佛와諸根이猛利며智慧一明

了호聞佛所說호스則能敬信호스

舍사利리弗불也아則能敬信호스

다世世尊존하오직彭원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니르쇼셔오직彭원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쇼셔엇대어노의會회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百億千천萬만億의會회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衆중生생이아리諸저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외여리根근이아리諸저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難해불은이부터니르샤물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면能능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와信신호스也아則能敬信호스

爾時舍利弗欲重宣此義而說偈

言호스也아

法王無上尊아惟說影勿慮호스是會

無量衆에有能敬信者이다

그佛舍가刹리弗블의의佛들다

피려하야의偈게를스는오디의法범王항

無무上상尊尊은의오디의會화의

佛의復止舍利弗다若說是事也一

切世間天人阿脩羅一皆當驚疑也一

增上慢比丘一將墜於大坑也一爾時

世尊。重說偈言也一

止止。不須說也一我法의妙難思也一

諸增上慢者 聞必不敬信

하라

부테다가이의를니러佛블을말이샤
드흐다가이의를니러면일切체
世間간天天人인阿야脩슈羅라
다반드기놀라疑의心심호리며
增중上상慢만비호구장차큰
구데벼러디라그호세계尊존이
다시獨게로니러가디말라말라구
적여니러디마를디니라내法법의
嚴미妙묘호야스량호미어려운디
라모드增중上상慢만홀사르미드
르면반드기恭공敬敬경호
야信신티아니호리라

爾時舍利弗。重白佛言

호스世尊하

惟彰說之惟彰說之

호스

今此會中

에

如我等比。百千萬億。世世已曾

從佛受化。如此人等。必能敬信

長夜安隱。多所饒益。而說偈言

時舍利弗。欲重宣此義。而說偈言

오다
호다

無上兩足尊。彰說第一法。我為

佛長子。惟垂分別說。是會無

量眾。能敬信此法。佛已曾

世世教化如是等。皆一心合掌

우원스신 兩량 足족 壽壽 宗宗 子子 弟弟 元元
 스오지 第第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내 부 텃 은 아 드 리 스 오 나 큰 히 야 니
 량 사 물 드 리 우 쇼 셔 의 회 엿 無 무
 敬 경 호 스 와 信 신 호 스 오 리 히 파 부
 教 교 호 마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舍 합 호 拿 장 호 약 부 텃 마 를 든 조 와 반
 呑 고 켜 호 습 호 나 부 터 구 호 는 차 리
 帛 과 호 소 냐 나 문 부 터 구 호 는 차 리
 物 獨 원 호 스 오 디 이 衆 중 호 위 호 시
 논 전 호 로 큰 히 야 니 르 차 물 드 리 우
 쇼 처 호 들 히 의 法 법 호 든 조 오 면 큰 기
 리 부 를 나
 리 이 파

爾時世尊의 會舍利弗 說一已殷

勤三請니豈得不說오汝今諦聽야

善思念之라吾當為汝야分別解說리

라 ○ 그 때 세 계 존이 소사리弗블
등려니르사디최호마브스러나

세 번請청키니왔데나리디아나호

러오최의제仔조細제히드러이대
스랑호라내반도가너爲위

說與語時會中有比丘比丘尼億

波塞優婆塞五千人等即從座起야

禮佛而退나所以者何호此輩罪

根深重야及增上慢야未得謂得

未證 을 謂證 야 有如此失 是 是以不

住 는 世尊 이 默然 야 而不制止 니

이 말 니 고 실 제 회 중 동 에 비 하 유 우 婆 바 塞 승 優

유 婆 바 夷 이 오 우 천 인 等 동 의 이 座 좌 剎 로 舍 니 禮 례 數

수 尊 고 卑 고 慢 만 心 심 得 득 已 이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上 尊 고 慢 만 心 심 得 득 已 이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得 已 이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호 然 야 已 이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足 족 矣 야

爾時佛告舍利弗 我 今此衆 이 無

復枝葉

고

純有眞實

다

舍利弗

아

如是

增上慢人

이

退亦佳矣

라

汝今善聽

라

當為汝說

라

호리

○

그

부

테

舍利

라

다

내

오

는

이

衆

중

이

는

의

와

가

지

니

업

고

純

순

히

正

경

은

實

실

이

잇

다

만

人

신

의

를

음

도

는

고

되

니

어

제

舍利弗

의

言

오

唯然

世尊

하

願樂

聞

이

다

○

유

然

연

世

계

尊

하

하

願

樂

고

저

호

노

하

다

○

유

然

연

世

계

尊

하

佛告舍利弗如是妙法

○ 부득이

佛 불 드 러 나 는 사 의 이 근 호 은 법 법 을

諸佛如來一時乃說之

○ 나 시 如 優 曇 鉢

華一時現耳

○ 諸 佛 不 如 來 華 一 時 現 耳

가 나 는 지 나 는 후 우 른 말 華 호 一 時 節 절 에 하 호 번 現 現 호 이 근

라 하 나 ○ 舍 利 弗 汝 等 當 信 佛 之

所說言不虛妄

○ 舍 利 弗 汝 等 當 信 佛 之

드 기 부 녓 분 오 불 신 호 라 말 스 미 虛 허 후 망 티 아 나 호 나 라

舍利弗諸佛隨宜說法意趣

難解

라 ○ ○ 숨겨서 이익이 없게 하는 법을 아귀라 하여 설법하는 법

호의 비유니 아로
마어려우니라

所以者何

我以無數方便

種種因

緣譬喻

和言辭

演說諸法

是

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
鮮니唯有諸

佛사乃能知之니

호시니

엇데 이고 내 아무 수 방 방 변과
種송種妥因신緣선과辭과喻유과

말로諸저法법을퍼니고호니
법의思스물량호야크리호요미解능

히아를거세아니니오적諸저佛
불이하解능히안근시니

所以者何_오諸佛世尊_이唯以一大事

因緣故_로出現於世_{니라}

하느니라

위하여 오고 諸佛불세 諸尊존이 오
직은 근인 일 인緣연 전 대 로 세계間

간에 나타 현
하느니라

舍利弗_아云何名諸佛世尊_이唯以一

大事因緣故_로出現於世_오諸佛世尊

欲令衆生_로開佛知見_야使得清淨

故_로出現於世_며欲示衆生佛之知

見故_로出現於世_며欲令衆生_로悟

舍利弗^아是爲諸佛^이以一大事^이因爲緣

故^로出現於世^라나 ○^아舍利弗^리佛^불是

의 일대 사승의 인연이 전적으로
世間에 출현한 것은

佛告舍利弗^아諸佛如來^이但教化

善薩^이諸有所作^이常爲一事^이唯以

佛之知見^로示悟衆生^이舍舍利弗^아

如來^이但以一佛乘^{으로}故^로爲衆生說法

唯^로無有餘乘^이若二若三^{이라}나

부러워舍利弗는 여러 가지로
諸佛을 가르치며 오직 보살도

生作演說諸法なり。是法の皆為一佛

乘故と是諸衆生の從諸佛聞法なり。

究竟皆得一切種智なり。舍利弗の未

來諸佛の當出於世なり亦以無量無數

方便の種種因緣の譬喻言辭を而為

衆生の演說諸法なり。是法の皆為一

佛乘故と是諸衆生の從佛聞法なり。究

竟皆得一切種智なり。舍利弗の現在

十方無量百千萬億佛土中の諸佛世

尊의多兩饒益의安樂衆生의是諸

佛도亦以無量無數方便과種種因緣

과譬喻言辭로而為衆生의演說諸法

是法이皆為一佛乘故로是諸衆

生이從佛聞法의究竟皆得一切種智

라○舍사利리弗불是아過과去去升升諸

方방便便與과種種空空種種因因緣緣與과

諸諸法法皆皆乘乘舍舍是是為為法法皆

是是為為法法皆皆乘乘舍舍是是為為法法皆

일일切체種종잡디를得득하하니라
 송사刹利라弗불의未未리諸저佛
 불이반득기世世間간의나도無무
 量량無무數數十方方方便便과種種
 因因緣緣연과譬譬의喻喻와말로衆
 生生因緣緣爲爲의諸저법법을퍼니
 리리나나法法의다一일佛佛乘乘
 을爲爲위하하노전太太로이모든衆衆生生
 心心의부터를조차法法드러只只大대
 다一일切체種종잡디를得得하하리
 라송사刹利라弗불의現現在在지하하
 십십方方방있無무量량百백이천萬
 만億億의佛佛불土土中中에諸저佛佛
 世世尊尊존의饒饒益益의하하미하衆
 生生心心을便便安안코즐겁게하하
 니니이諸저佛佛불도도無무量량無無
 무數數十方方方便便과種種種種因因
 緣緣연과譬譬의喻喻와말로衆衆生生心心爲

위^하야^아諸^저法^법을^을퍼^니니^르시^는니^니
이^의法^법이^이파^파一^일佛^불을^을乘^승을^을爲^爲위^위
히^히시^시전^전차^차로^로이^이모^모든^든衆^중生^생의^의
부^부터^터조^조차^차法^법을^을드^드러^러모^모든^든대^대파^파一^일
切^적種^종종^종智^지의^의
를^를得^득득^득리^리라

舍利弗^아是^는諸^저佛^불이^이但^단敎^교化^화冀^기薩^사欲^욕

以^이佛^불之^의知^지見^견로^로示^시衆^중生^생故^고吡^비欲^욕以^이佛^불之^의

知^지見^견로^로悟^우衆^중生^생故^고吡^비欲^욕令^령衆^중生^생入^입佛^불

之^의知^지見^견故^고라^라니^니○諸^저佛^불이^이佛^불을^을퍼^니니^르시^는니^니

보^보살^살을^을교^교화^화하^하샤^샤부^부터^터知^지디^디
見^견見^견으로^로衆^중生^생의^의을^을외^외오^오져^져하^하시^시

는^는전^전차^차며^며부^부터^터知^지디^디見^견見^견으로^로衆^중生^생
生^생의^의을^을알^알외^외오^오져^져하^하시^시는^는전^전차^차며^며衆^중生^생

중생의 생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에 들에 코져 하사 논전치라

舍利弗아我今에亦復如是라知諸衆

生의有種種欲과深心兩著라隨其本

性라以種種因緣과譬喻言辭와方便

力로而為說法라舍利弗아如此라

皆為得一佛乘一切種智故라

舍利弗 불아 내이 제 소이 근하
야 모 든 衆 중 생 싱이 종 종 종 종 종

과 개 끈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본 지 명 을 조 차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과 辭 비 喻 유 와 말 說 설 法 법 하 노 나
으 로 爲 위 하 야 說 설 法 법 하 노 나

舍利弗 불불아의근호미과일佛
불乘승일일切체種宗智디得득호

○舍利弗아十方世界中
○舍利弗아十方世界中

何況有三
何況有三

舍刹利弗 불아십십방世계界
舍刹利弗 불아십십방世계界

舍利弗아諸佛의出於五濁惡世
舍利弗아諸佛의出於五濁惡世

所謂劫濁과煩惱濁과衆生濁과見濁
所謂劫濁과煩惱濁과衆生濁과見濁

如是舍利弗아劫濁亂時에衆
如是舍利弗아劫濁亂時에衆

生이垢重아慳貪嫉妬아成就諸不善
生이垢重아慳貪嫉妬아成就諸不善

生이垢重아慳貪嫉妬아成就諸不善
生이垢重아慳貪嫉妬아成就諸不善

根故 諸佛이 以方便力로 於一佛乘

에 分別說三니라시니

습자 刹의 佛불아 諸刹佛불이 五劫

경 獨과 과 煩번 惱紅 獨과 命망 濁과 生

나 이 크 티 속 사 刹리 佛불아 却 劫 濁

새 의 佛 무 거 위 앗 따 더 貪 檀 喜 明 의 며

일 은 신 諸 刹佛 불이 方 방 便 변 力 력

르 시 니 ○ 舍刹佛 아 若我弟子 自

阿羅漢 阿羅漢 阿羅漢 佛者 一 不聞 不知 諸佛

如來人但教化善惡事은此一非佛弟

子이非阿羅漢이非辟支佛라

舍刹利弗 불아라漢한辟支佛辟支佛

불이로라諸佛諸佛如來來

이름은子子阿羅漢阿羅漢

한이아니辟支佛辟支佛

又舍利弗是諸比丘比丘尼一自謂

已得阿羅漢是是最後身究竟涅槃이

便不復志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

當知此輩皆是增上慢人。所以
 者何。若有比丘。實得阿羅漢。若
 不與法。無有是處。

舍刹利弗。阿羅漢。比丘。阿羅漢。漢。若
 比。得。竟。經。繫。最。後
 身。究。竟。經。繫。最。後
 三。兩。提。多。羅。三。三
 人。心。安。樂。無。所。依。止。阿
 羅。漢。比。丘。一。實。實。實。實
 法。信。心。阿。羅。漢。比。丘。一。實。實。實。實
 法。信。心。阿。羅。漢。比。丘。一。實。實。實。實

佛語라 諸佛如來 言無虛妄 然無有

餘乘고 唯一佛乘라 이니

舍刹利리 佛불 아녀 희 반 드 기 호 오

△ 오 오 로 信 신 호 약 아 라 부 텃 파 불 受

△ 持 디 호 라 諸 저 佛 불 호 의 來 리

말 스 미 處 허 호 망 업 스 나 녀 나 문 乘

승 의 업 고 오 직 호

佛 불 乘 승 의 라

爾時世尊 欲重宣此義 而說偈言

○ 그 世 尊 존 의 이 는 들 다 시

比丘比丘尼 有懷增上慢 及優婆塞我

慢 及優婆塞 不信 如是四衆等 其

數有五千니不自見其過야於戒

有缺漏며護惜其瑕疵니是디小智

已出니衆中之糟糠니佛威德故

去니斯入은勸福德야不堪受是法

○上比비丘구比비丘구尼니增증宗종

塞우我의慢만過과優우婆바夷夷不不

數수十十五五은 千천이 四四衆衆중 多多히 그

신신디 이 시며 허므를 간 슈슈야 앓기

덕이 저저의 법법을 이리 부텃威위德

○此衆이無枝葉고唯有諸貞

寶貝4호舍利弗의善聽라호○의衆중의의가

오 지₁正₂正₃호₄實₅실₆의₇잇₈는₉니₁₀舍₁₁
차₁₂利₁₃라₁₄弗₁₅불₁₆아₁₇이₁₈대₁₉드₂₀르₂₁라₂₂하₂₃니₂₄호₂₅

諸佛所得法을○諸佛불得得法을

無量方便力로而為衆生說다衆生心

所念과種種所行道와若干諸欲性과

先世善惡業을佛悉知是已야以諸緣

譬喻와言辭方便力로令一切歡喜게

或說脩多羅와伽陀及本事와本生

未曾有也亦說於因緣과譬喻并祇夜

優波提舍經호 ○ 無무量량方방便변

生생空공為爲위위호호의의닐닐오오디디衆衆중중生生행행호호는

道도도도와와여여리리가가있있한한欲欲욕욕性性성성과과先先

선선世世세세의의善善선선惡惡악악業業업업은은부부테테의

를를다다아아과과諸諸저저緣緣연연譬譬피피喻喻유유와와言言

안안辭辭스스方方방방便便변변力力력력으으로로一一일일切切

체체를를가가기기에에호호야야시시혹혹簡簡介介多多다다羅羅라

와와加加가가陀陀다다와와本本본본事事스스와와本本本本生生

인인緣緣견견과과譬譬피피喻喻유유와와祇祇기기夜夜야야와

優優우우波波바바提提테테舍舍샤샤經經경경을을닐닐오오라

執執根根이이樂樂小小法法時時貪貪著著於於生生死死於於諸

無量佛에不行深妙道하衆苦所惱亂

이為是說涅槃니호我設是方便야호今得

入佛慧고未會說汝等이當得成佛道

니호所以未曾說은說時未至故니리今

正是其時이리決定說大乘라호我此九

部法은隨順衆生說야호入大乘為本이리

以故로說是經라호○純은法법을즐겨生

佛불니호의貪탐着착하의無무量량

아니호의한苦고의보차어즈류의

해나 내 이 방 방 변 을 밍 기 라 불 불
 해와 드 로 들 득 득 게 호 고 너 회 반 드
 기 불 불 도 도 일 우 물 득 득 호 니 위 략 와
 리 나 르 디 아 니 호 비 아 리 니 르 디 아
 니 호 문 니 를 때 시 절 찬 이 다 든 디 문
 근 전 치 러 니 이 제 정 하 의 때 시 절
 설 일 시 결 결 단 호 의 일 호 등 호
 대 대 승 승 은 니 르 노 라 내 의 구 구
 분 법 법 은 승 승 초 상 을 조 차 순 순
 야 일 의 대 대 승 승 에 드 를 만 사 근 린
 시 의 린 드 로 의
 경 경 을 날 오 라

右佛子

心淨

柔軟亦利根

無量

諸佛所

而行深妙

道

為此諸佛子

說是大乘經

我記如是入

來

世_니成佛道_니以深心_로念佛_다修

持淨戒故_라此等_이聞得佛_고大喜

充_리遍身_리佛知彼心行_을故為說大

乘_라○佛_불子_자rap고_도느_미근_근의

라無무量諸佛_불諸佛_불深心_심

道_도行_행佛_불諸佛_불深心_심

為_위大_대乘_승經_경을_니

오_는佛_불道_도을_우리_니기

戒_계를_다念_념하며_조호_호

부_부得_득호_호물_물을_고장_장기_부미_미모

알_알이_이그_그를_를시_시為_為위_위하_하야_야大_大대_대乘_승을_을

○노라聲聞若菩薩이聞我所說法

乃至於一偈도라皆成佛無疑라

聲聲聞문이어거나菩보菩薩살위내닐
은法법을드르도되고獨獨에나르러

도다다成성佛불호이
疑疑의심심입스라

十方佛土中에唯一乘法의無二亦

無三이除佛方便說라但이以假名字

引道於衆生나說佛智慧故라

十십십方방법佛불土土中中중중에에오오적적一
일乘乘송法법이잇고들업스며또케

라업스나부텃方方便변說설은더나
라오적적비론일후으로衆중생생상상을

引인 導도 호는 나 부텃 智 지 慧혜 解월 니 르 논 전치 라

諸佛이 出於世이 唯此一事 實餘

二 則非真이 終不以小乘로 濟度於

衆生 니 라 ○ 諸저 佛불 의 세 間간 에

小나 문 돌 호 眞진 이 와 니 니 참 내

小나 乘승 으로 衆중 生生 상 濟제 度도

得法고 定慧力로 莊嚴야 以此로 度衆

生니 自證無上道大乘平等法고 若

以小乘로 化도 乃至於一人도 我則

墮慳貪라此事이為不可하라하若人이

信歸佛면如來하不欺誑며亦無貪嫉

意니斷諸法中惡시故佛이於十方애

而獨無所畏라我니以相嚴身로光明

照世間야無量衆所尊라為說實相

印라노 ○ 부득이 대승의 往來 慧

혜 力 력 은 로 莊 嚴 法 門 고 定 靜 慧

중 生 心 을 濟 度 도 嚴 心 야 일 로 衆

上 上 道 大 大 乘 小 乘 平 等 法 法 門

을 證 證 證 大 大 乘 小 乘 平 等 法 法 門

去 去 去 去 一

을터몬호미드외리라호다여가차리
 미信心으로부터희오면如여來리
 소기디아니호며소貪탐코의는
 디업소니여러가짓法법中동잇
 의올그출시부퇴十십方방에호
 아저홀타업스니라대相상嚴엄
 身신으로光광朋명이라世世間間에
 비취여無무량衆중의尊尊홀배
 라為爲호야實실相
 상印안온니르노라

舍利弗 아當知 라我本立誓影 은欲令

一切衆 로如我等無異 니호如我昔所願

今者 에已滿足 야호化一切衆生 야호皆

令入佛道 니호노 ○ 舍刹利弗 불야반
 기알라내추본來

리 擔 州 彰 圓 徹 요 문 일 切 體 衆 尊
으 로 날 곤 하 야 달 옴 업 게 고 저 호 니
내 배 弱 원 흥 곤 하 약 이 제 하 마 滿 만
足 족 하 야 일 切 體 衆 尊 生 상 온 教
道 化 화 하 야 다 佛 불 라
道 正 에 들 에 하 노 라

若我 一 遇 衆生 盡 教 以 佛 道 然 無

智 者 一 錯 亂 迷 惑 不 受 教 然 無

하 다 가 내 衆 尊 生 상 맛 나 佛 불 道 도
를 다 고 리 치 던 단 智 디 慧 헤 업 손 차
리 미 섣 거 어 즐 하 야 迷 미 惑 후 하 야
고 리 초 물 받 다 아 니 하 리 러 니 라 하 야

我 知 此 衆生 未 曾 脩 善 本 堅 著 於

五 欲 癡 愛 故 生 惱 以 諸 欲 因 緣

大華嚴經

卷一

○墜墮三惡道하輪回六趣中하備受
諸苦毒하受胎之微形하世世하常增
長하薄德少福人하衆苦所逼迫하入
邪見稠林若有若無等하依止此諸見
具足六十二하深著虛妄法하堅受
不可捨하我慢自矜高하諂曲心不實
於千萬億劫하不聞佛名字하亦不
聞正法하如是人하難度하是故舍利
弗하我為設方便하說諸盡苦道하示

之以涅槃니我雖設涅槃도是亦非

真滅니와 ○ 내 아 로 디 이 衆 生 生 生 意

아 니 코 오 欲 욕 에 구 의 著 特 하 여

癡 티 愛 의 人 天 大 로 三 惡 道

欲 욕 인 緣 연 으 로 三 善 道

도 래 락 터 디 六 趣 中 到 에 회

도 라 여 러 가 지 苦 惱 毒 獨 구 를 受 受

유 하 며 胎 터 의 小 高 맛 얼 구 를 受 受

은 福 복 積 累 妙 妙 한 苦 惱 의 다 와

도 미 며 邪 曲 妙 妙 한 苦 惱 의 다 와

法華經卷一

고바미스미實실향려온호야千천萬
만德의劫범에부텃일후를듣디몬
호려호正정法법든디몬호야이근
호상근미濟제度도호미어려울시
이런도로舍舍利리弗블아내為위
호약方방便변은빙기라여러苦고
다올道도로닐어로닐槃반을보요
니내비록涅별槃반을닐의도호
眞진滅멸의
아니어나와

諸法이從本來야常自寂滅相이니佛子

行道已來世에得作佛라호리

諸法법이本本來리부터상제
寂滅멸호相상의니佛불子
行行道호면來리世세에
부려드외요물得득호리라

我有方便力야開示三乘法호一切諸

世尊이皆說一乘道호今此諸大

衆은皆應除疑惑이諸佛이語無異야

唯一無二乘호니

내方便변便변力력의 아卅三삼乘乘승
法법을을 여려 회회 요요 니니 일일 切切 諸諸 저저
世世 尊尊 존존 의의 과과 일일 乘乘 승승 道道 도도 로로 니니
근근 씨씨 는는 니니 라라 의의 제제 이이 모모 든든 대대 衆衆 중중
은은 다다 疑疑 의의 惑惑 혹혹 은은 더더 루루 미미 을을 호호 니니 諸諸
저저 佛佛 불불 이이 가가 리리 달달 음음 업업 처처 오오 직직 호호 나나
히히 오오 二二 의의 乘乘 승승
의의 업업 스스 니니 라라

過去無量劫에無量滅度佛이百千萬

億種이其數라不可量니如是諸世尊

種種緣譬의無數方便力로演說

諸法相니是諸世尊等이皆說一乘

法니化無量衆生니令入於佛道니

되니간無무數수劫법옛그지입스
滅멸도佛불의百백千천萬만億

의가지라그數수해아리디몬
라니이근호諸月世세尊손이種

種種緣緣연譬피喻유와無무數수方
방便便변力력으로諸諸法법相상은

피니르세니의諸諸世世尊尊돈히
다一일乘승法법은니르차無무量

佛佛衆衆生生은은교교化化화하사
佛佛道道도에들에호호시시라사

又諸大聖主一知一切世間인天人群

生類의深心之所欲하更以異方便로

助顯第一義하나라

또 모든 대대聖성주주 | 인群군生生類類

세계間간 인天天人人 인群群 인生生類類

누의기편모스미欲욕은아리샤다 가다린方方便便 번으로第第一一義義

의를도아나 ○若有衆生類하值諸

過去佛야若聞法고布施며或持戒와

忍辱과精進과禪과智와等로種種備
福慧나如是諸人等이皆已成佛道나

라 ○ 하다 衆生 類 하는 法 門 是 也

布 보 施 시 精 정 進 진 戒 계 忍 忍

와 들 種 종 種 종 福 복 慧 혜

佛 불 道 도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인 이 善 善 軟 軟 心 心 出 出 如 如 是 是 諸 諸 衆 衆 生 生 皆 皆 已 已 成 成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佛 佛 道 道 諸 諸 佛 佛 滅 滅 度 度 後 後 若 若

璉瑪瑙玫瑰瑠璃珠₂清淨廣

嚴飾₁絃校於諸塔₂或有起石廟₃

梅檀及沈水木樞并餘材₁靛瓦泥土

等₁若於曠野中₂積去成佛廟₃

乃至童子₁戲₂聚沙為佛塔₃如是

諸人等₁皆已成佛道₂

諸₁佛불의滅멸度도거₂舍利舍沙
利₁리佛불의滅멸度도거₂舍利舍沙
가₁이塔탑은₂洲요다₃舍利舍沙
파₁梨리와₂瑠璃珠₃와₄瑪瑙₅와₆玳瑁₇
미₁瑰회₂琉璃₃瑪瑙₄珠₅유₆로₇清淨₈정₉
히₁너₂비₃식₄식₅기₆우₇여₈여₉러₁₀塔₁₁탑₁₂에₁₃우

이러시 후 석벽 廟묘를 세우며 栴檀
단과 沈檀木 命와 木목 樓를 짓고
문과 모와 기개와 熏돈 香로 하여
다카면 드릇가 온디 熏사하 佛불 廟
묘를 일우게 甘아히 노릇하 佛불 廟
의 화 佛불 塔 講堂 講堂으로 애나르난의
큰 熏사 熏돈 들이 다하 佛불 道
佛불 道 道로 일우니라

若人_이 為佛故_로 建立諸形像_다 刻雕
成衆相_出 皆已成佛道_也 或以七寶成
銅_也 鑄_也 赤白銅_과 白銀_及 鉛錫_과 鐵木及
與泥_也 或以膠漆布_로 嚴飾作佛像_也
如是諸人等_이 皆已成佛道_也 彩畫作

佛像百福莊嚴相하自作나若使人나

皆已成佛道하乃至童子나戲하若草

木及筆나或以指爪甲로而畫作佛

像하如是諸人等나漸漸積功德하具

足大悲心하皆已成佛道하但化諸

薩하度脫無量衆하나

하나 가 까 리 미 부 터 為 위 훈 전 大 小 로

하라 가 지 形 형 像 상 은 池 요 디 刻 可

하라 가 지 形 형 像 상 이 리 신 다 하 마 佛 불

하라 가 지 形 형 像 상 이 리 신 다 하 마 佛 불

와 홀로 그로 하여 시혹 외의 여러로
 호로 식의 기수며 불불상 명
 년의 큰 하름 들히 다 하마 불도
 도 곧 일이며 彩 色의 莊嚴 相
 불상 福 莊嚴 相
 로 되게 명 큰 어 나 능 브 리
 마 불도 를 일 우며 아 히 노
 야 프 리 나 기 나 부 디 어 나 시
 락 도 보 로 그 려 불 불상 명
 니 르 년 의 큰 하름 들히 漸 漸
 이 공 덕 을 모 도 와 대 悲 心
 어 기 자 다 하 마 불도 를 일 위
 직 諸 善 보 薩 婆 教 化 하야
 無 量 衆 生 을 度 도 脫 離 하라

若人 於塔廟 寶像 及畫像 以華

香幡 蓋 敬心 而供養 若使人作樂

引擊鼓吹角貝也簫笛琴笙篳篥琵琶

鑊銅鈸也如是衆妙音也盡持以供養

或以歡喜心也歌頌佛德也乃至

一小音也皆已成佛道也若人也散亂

心也乃至以一華也供養於畫像也漸

見無數佛也或有人也禮拜也或復但

合掌也乃至舉一手也或復小低頭也

以此也供養像也漸見無量佛也自成

無上道也廣度無數衆也入無餘涅槃

호
如新畫火滅니케호

호다기카리미탑탑廟묘와寶보像
상과畫와像상애筆화香香燻번蓋
개로恭공敬경무스무로洪공養養
귀나습브려풍류호디복디며角과
貝패분며簫소와디과琴금과箏공
篋홀와琵琶琵琶와鏡고와銅동銀
환와의곤한倣미妙묘호호소리
다가저供공養양귀사시혹깃븐
호로歌가唄배로부텃덕덕을頌
송호디호조고맛소리예니르닌다
호마佛불道도를일우며호다가사
근미허튼어즈러운무수호로호고
조로畫화像상에供공養양호해니
르년綱綱網網無무數수佛불은보
며시혹사리미결커사시혹선다민
승함掌掌귀사호손드로애식를어

나 시 후 또 조 고 배 머 리 수 기 거 나 의
 로 像 상 을 供 공 養 양 하 신 漸 점 漸 점
 無 무 量 량 佛 불 을 보 아 漸 無 무 上 상
 道 도 不 불 일 위 無 무 數 수 衆 중 을 너 비
 度 도 脫 탈 하 야 나 문 것 업 신 理 理 無 繫
 반 애 드 로 되 서 비 다 아 브 리 업 듯 개
 라 하 니 ○ 若 人 의 散 亂 心 으 入 於 塔 廟
 中 야 一 釋 南 無 佛 心 皆 已 成 佛 道 라 하 니
 하 다 카 카 리 미 후 든 어 스 리 운 무 스
 무 로 塔 塔 廟 廟 中 中 登 登 에 드 러 하 南 남 無
 무 佛 불 道 도 不 불 일 위 無 무 數 수 衆 중 을 너 비
 마 佛 불 道 도 不 불 일 위 無 무 數 수 衆 중 을 너 비

於 諸 過 去 佛 在 世 或 滅 後 若 有 聞 是
 法 皆 已 成 佛 道 라 하 니

모든 過과 去거 佛불 世세 間간 一이
法법 道도 드르신 滅멸 後後 후의 다
佛道도 一을 일 우니 라
佛佛

未來諸世尊 其數 無有量 是諸

如來等 亦方便說法 一切諸如

來 以無量方便 度脫諸衆生 入

佛無漏智 若有聞法者 無一不

成佛 諸佛本誓願 我所行佛道

普欲令衆生 亦同得此道

未來來리 었 諸有世世尊은 그
수니 그 세를 스니 이 모든 如여來리

도소도소 一切 諸佛 如來 法門 그
지엄은 方便 變으로 모든 衆生
성온 度도 脫탈 하야 부텃 滿스
합지 에 들에 하느니 하다가 法門 드
르 리 이 시면 하나 도 成 佛 본 來 리
리 업스 리 라 諸 佛 불 本 來 리
A 捨 버 影 원 은 내 行 行 佛 불 道 도
로 니 비 衆 生 生 行 行 佛 불 道 도
외 道 도 를 得 得 得 得 하느니라

未來世諸佛 雖說百千億無數諸法

門도 가 其實은 為一乘 다 이 니

未미 來리 世세 間間 諸佛 佛 불 이 비록
百卑 千천 億億 의 無 무 數數 諸佛 法 法 門 門
門 門 을 늘 어 도 그 實 實 實 實 은
一 一 乘 乘 을 爲 爲 위 호 미 라

諸佛兩是尊이 知法의 常無性마 佛인

種이 從緣起시 是故로 說一乘니 是

法의 住法位의 世間相의 常住니 於道

場에 知已고 導師의 方便說니 法의

諸佛佛性兩足尊은 이 법의

상대성을 일소 할 만치 일의 법은

종이緣연을 조차 날의 법은

알승을 나르니 이 법의 법은

位위에 두는 세간의 상의

상대 두는 도場에 알오

도師인 十方便은

으로 나르니 이

天人所供養現在十方佛其數如

恒沙하出現於世間하安隱하舉念故

亦說如是法하知第一寂滅하신이마

以方便力故하雖示種種道하其

實하為佛乘하이라○天하人하供하養하現하顯하

야귀신十심方하佛하불이그數수現

恒하沙사은하야世間간해나現

현하사디衆生生하是은便하安安하現

하사논전大로소이근은法법을니

知衆生諸行과深心之所念과過去所

習業과 欲性과 精進力과 及諸根利鈍

以種種因緣과 譬喻亦言辭로 隨應

方便說는 니시 ○ 衆生性異의 여려行행

精進進진 力력 과 諸諸 根根 利利 鈍鈍 과

因緣緣緣 연 辭辭 喻喻 說說 法法 門門 宣宣 示示 於於 佛佛 道道

今我亦如是安穩衆生故以種

種法門로 宣示於佛道며

이 제 대 衆生 性 異 故 以 種 種 法 門 宣 示 於 佛 道 也

법문구으로佛불
道도를퍼와여

我以智慧力로知衆生欲性야方便說

諸法야皆令得歡喜라

내智디善혜力력으로衆生性의
性성欲욕을알아라方便으로諸
저法법을닐어다깃
부를得득케하노라

舍利弗야當知라我以佛眼로觀야見

六道衆生의貧窮無福慧야入生死險

道야相續야苦야不斷야深著於五欲

如犍牛의愛尾야以貪愛로自蔽야

盲瞶無所見고不求大勢佛와及與斷

苦法고深入諸邪見야以苦로欲捨苦

大是衆生故로而起大悲心라호

舍사利리弗불아 반드
시 眼 안 으 로 보 아 보 디
중 생 생 이 貪 飢 窮 구 호 아 福 복 慧 혜

欲 욕 애 기 피 箸 箸 호 디 聲 聲 모 牛 牛 우 의

佛 불 와 소 苦 苦 그 出 出 法 法 曲 曲 을 求 求 구 디

아 니 코 어 러 가 眞 眞 邪 邪 曲 曲 곡 曲 求 求 구 보 디

기 과 드 러 苦 苦 구 로 眞 眞 고 眞 眞 리 고 저

호 시 의 衆 衆 생 생 생 爲 爲 위 호 전 호 로 大

대慈悲비심심을
나르와도라
○我始坐道場야호觀

樹亦經行여호於三七日中에思惟如是

事호我所得智慧一微妙最第一이어

衆生은諸根이鈍호著樂癡兩盲이如

斯之等類를云何而可度하다어니

내처심道도場당에안자나모보며
또두루드니며삼칠日日슬中中등

에이근호인은스령호디내得得득호
智디慧혜혜|微미妙묘|一第第一

일이어든衆중生生싱은諸저根근이
鈍돈호야迷미惑惑즐교의는은말유

메着착닥호엿나니이근호등등類류
를엇테어루濟濟제도호려표호다니

爾時諸梵王과及諸天帝釋과護世四

天王과及大自在天과并餘諸天衆着

屬百千萬이恭敬合掌禮야請我轉法

輪호다 ○ 諸天帝釋석及護世

四천天왕帝대釋대及護世천衆중着

屬속百백千천萬만의 恭敬공경合합掌합禮합禮례

○ 我나即즉自자思사惟호若만但단讚찬

佛乘호衆生중沒몰在재苦고中중不能불信능是는法법

破파法법不부信신故고墜떨於에三삼惡악道도我나

寧不說法고疾入於涅槃호라

내 즉 재 내 스 랑 호 디 호 다 가 오 직佛
불乘승을 가 리 면衆 중 생 상 이 드 마
若 고 에 이 실 시 능 능 히 이 법 법 을信
신 되 문 호 약 법 법 현 미信 신 티 아 니
혼 전 차 로 삼 심惡 악 도 에 배 리 다
리 니 내 출 히 說 설 법 법 말 오涅 별 樂
반 에 별 리 드
로 리 라 타 카

尋念過去佛人兩行方便力고我今所

得道도亦應說三乘다이로

過과 去去 佛佛 人人行 行行 호 호 한 한 方方 便便
변 力力 력을 미 미 조 조 차 차 念念 렬 렬 호 호 고 고 인 인 오 오 늘
得得 득 득 혼 혼 道道 호 호 도 도 호 호 삼 삼 승 승
乘乘 승 승 을 을 큰 큰 어 어 바 바 올 올 토 토 다

作是思惟時에十方佛이皆現作梵音

로慰喻我다善哉라釋迦文第一之

導師得是無上法나隨諸一切佛야

而用方便力다我等도亦皆得最妙

第一法야為諸衆生類야分別說三乘

나少智는樂小法야不自信作佛시

是故以方便로分別說諸果나雖復

說三乘나但為教菩薩라

이소량호른제니십지방佛불이다現
현호사梵범음으로나를慰위勞

是念_호我出濁惡世_{니호}如諸佛所說_{야호}

我亦隨順行_{라호리} ○_합利_리弗_불의_아

성호師_스子_하의_갑고_조고_미妙_묘호
호_소릴_든좁_고南_남無_무諸_저佛_불

호야_일큰_좁고_호의_호근_호念_념을_호
의_내濁_탁惡_악의_내제_제에_나니_諸저_佛

불_니로_참근_호야_나도_호조_호
저_順순_호야_행호_리라

思惟是事已_{고호}即趣彼羅奈_{니호}諸法寂

滅相_은不可以言宣_호以方便力故_호

為五比丘說_{니호}是名轉法輪_{니호}便有

涅槃音_과及以阿羅漢_과法僧差別名

라 하 니 ○ 라 이 위 른 스 랑 하 고 즉 재 波 巴 羅

滅 滅 相 變 力 轉 大 小 比 比

五 子 爲 輪 轉 之 法 輪 轉 之 法 輪 轉 之 法

僧 俗 二 衆 之 法 輪 轉 之 法 輪 轉 之 法

從 久 遠 劫 來 讚 示 涅 槃 法 生 死 苦

永 盡 我 常 如 是 說

오 란 먼 劫 劫 劫 苦 難 苦 難 苦 難 苦 難 苦 難 苦 難

의 內 上 下 內 上 下 內 上 下 內 上 下 內 上 下

舍 利 弗 當 知 我 見 佛 子 等 志 求

舍利弗。當知鈍根小智人。著相

憍慢者。不能信是法。今我喜

無畏於諸菩薩中。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舍利弗。鈍根小智人。著相憍慢。不能信是法。今我喜無畏於諸菩薩中。正直捨方便。但說無上道。

○舍利弗。鈍根小智人。著相憍慢。不能信是法。今我喜無畏於諸菩薩中。正直捨方便。但說無上道。

○舍利弗。鈍根小智人。著相憍慢。不能信是法。今我喜無畏於諸菩薩中。正直捨方便。但說無上道。

○舍利弗。鈍根小智人。著相憍慢。不能信是法。今我喜無畏於諸菩薩中。正直捨方便。但說無上道。

菩薩。聞是法。疑網。皆已除。千

二百羅漢。悉亦當作佛。

者_이斯人_이亦復難_니辟如優曇華_이

一切皆愛樂_며天人所希有_라時時_에

乃一出_니聞法歡喜讚_디乃至發一

言_도則為已供養一切三世佛_라是

人_이甚希有_야過於優曇華_라

諸佛불의 세계問간애니라미

며러맛나미어려우며正정히세

問간애나도이法법닐우미

우며無무량無무數수劫劫에이

法법드로미선어려우며能능히이

法법드로리이까르미선어려우니

가존비견한優우曇曇華화이

切체다드카즐기며天天人산에希

희有유호호거시라時시節節時時節
절에악호번악미근호호니法法법
깃거讚讚讚讚讚호호호호말말말말
르리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불을供공養양호호호호호호호호호
마甚심히希희有유호호호호호호호
華화에라서○汝等이勿有疑我為
더으니라○汝等이勿有疑我為

諸法王 서호야 普告諸大衆 니호노 但以一

乘道 로 教化諸菩薩 오이 無聲聞弟子 니호

라 ○ 너희疑의心심두디말라너諸저

대衆중의개너비범고호호노니오직
一 乘승의道도로諸저菩보薩살은

教교化화하호고聲성聞문
弟弟子子호하입스니리

汝等舍利弗와聲聞及菩薩와當知是

妙法은諸佛之秘要라以五濁惡世

에但樂著諸欲이如是等衆生은終不

求佛道며當來世惡人이聞佛說一

乘고迷惑不信受야破法고墮惡道라

有慙愧清淨야志求佛道者든當

為如是等야廣讀一乘道라

니희舍利弗와聲聞과菩薩과當知是
善보薩살과반도기알라의妙요法
법은諸저佛불人秘비蜜반할문리
라五오濁탁惡악世세에오적여리

欲욕욕은 은즐거워 著착 탁탁 호호 지지 어어 러러 투투 호호 중중 생생 상상 은은 해해 종종 내내 佛佛 불불 도도 로로 求求 구구 터터 아아 니니 호호 리리 며며 當當 당당 來來 리리 世世 세세 에에 있있 도도 단단 샤샤 라라 미미 부부 터터 닐닐 온온 일일 乘乘 승승 을을 들들 고고 迷迷 미미 惑惑 후후 호호 야야 信信 신신 受受 슈슈 아아 니니 호호 야야 法法 법법 법법 할할 오오 惡惡 악악 道도 도도 에에 빠빠 러러 디디 리리 니니 붓붓 고고 리리 며며 清清 청청 淨淨 형형 호호 야야 뜨뜨 데데 佛佛 불불 도도 로로 求求 구구 리리 었었 거거 든든 반반 도도 기기 의의 근근 호호 니니 도도 들들 호호 爲爲 위위 호호 야야 한한 일일 乘乘 승승 도도 로로 를를 니니 비비 護護 잔잔 歎탄 한한 호호 라라

舍利弗

아

當知

라

諸佛法

이

如是

야以

萬億方便

로

隨宜

而說法

니

其不習學

者

上

不能曉了

此

와

汝等

은

既已知

諸佛世之師

의

隨宜

方便

事

야

無復諸

大施主女業加

大施主文長兩主

大施主具末七貞兩主

衣大施主裴貞已兩主

施主五月兩主

施主申守真兩主

嚴氏實業保体

裴主丹施安允希兩主

萬曆十九年辛卯臘月

日隨喜等

與一真人處均有願云印出經典以上報四恩下濟三
有同歸極樂之鄉同受妻養之樂感登覺岸 惟祝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施主姜億年兩主

春風保倅

南銀享兩主

柳氏宮禮兩主

柳身千兩主

慶千福靈駕

具億石保倅

柳慶明兩主

金德守兩主

具億石靈駕

朱莫回兩主

律禧兩主

經紙施主大丘性雲

金春良兩主

文南石兩主

竹心兩主

李世貞兩主

崔四貞兩主

金有还两主

比丘戒祥

比丘惠海

洪連石两主

比丘戒淳

比丘玉献

成 襄两主

比丘玄敏

比丘学悦

尹福回两主

比丘天穰

比丘淡雲

李几山两主

比丘德倫

比丘羲敏

姜慶才两主

比丘志献

比丘禅敏

崔勿金两主

比丘法以士

比丘籍崇

金國孫两主

比丘惠連

比丘惠安

金順成两主

比丘敬还

比丘体祐

金光惠两主

比丘罔苦

洪養主理真

比丘道默

化主處均

比丘智安

比丘道祐



